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해녀 이미지의 관광자원
활용가치 탐색

-표본조사에 따른 집단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觀光開發學科

陳 錚

2018 年 8 月

Exploring the Value of Tourism Resource
Utilization in Jeju Haenyeo Image

-Focusing on analysis of group differences
according to sample survey-

CHEN ZHENG

(Supervised by professor Jin-hei L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ourism

2018. 8.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해녀 이미지의 관광자원 활용가치 탐색

-표본조사에 따른 집단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이진희

陳 錚

이 論文을 觀光開發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 年 6 月

陳錚의 觀光開發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任和淳



委 員

員

張聖洙



委 員

員

李震熙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8 年 6 月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II. 이론적 고찰	4
1. 제주해녀의 의의와 특수성	4
1). 의의	4
(1) 개념	4
(2) 연혁	5
(3) 현황	7
2). 특수성	13
(1) 역사적 생활양식	13
(2)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19
(3) 변천과정	21
2. 제주해녀 문화정책 연구동향	22
1) 제주해녀 문화정책	22
2) 제주해녀 연구동향	25
3. 제주해녀 이미지 속성	26
1) 제주해녀 이미지 속성	26
2) 인지적 이미지	32
3) 정서적 이미지	62
III. 연구 설계	70
1. 연구 모형과 가설 설정	70
1) 연구모형 설계	70
2) 연구가설 설정	71
3) 조작적 정의 및 측정	72
2. 조사 설계	75
1) 조사의 개요	75
2) 설문지 구성	75
3) 자료분석 방법	78
IV. 자료분석 및 검증결과	79
1. 표본의 특성	79
1) 인구통계학적 특성	79
2) 관광형태적 특성	80

2.측정항목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82
1) 인지적 이미지	83
2) 정서적 이미지	85
3) 관광자원 활용가치	86
3.가설의 검증결과	87
4.집단 간 차이분석	90
V.결론	95
1.연구결과의 요약	95
2.연구의 한계 및 제언	97
REFERENCES	98
설문지	105
ABSTRACT	111

〈표 차례〉

표 1 연구절차 및 내용범위	3
표 2 총괄	9
표 3 현직해녀현황	9
표 4 연도별 해녀수량 현황	10
표 5 제주해녀의 7개 가림의 유산	12
표 6 제주해녀 관련정책	24
표 7 이미지의 개념	28
표 8 세화해녀잠수촌 식당음식 및 요리방법	51
표 9 김녕리 해녀마을 '만제영어조합법인' 식당음식 및 요리방법	53
표 10 숨비 대표님과 인터뷰	59
표 11 인터뷰내용	66
표 12 해녀사진 및 해외관람객 감상	67
표 13 설문지 구성	76
표 14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9
표 15 표본의 관광형태적 특성	81
표 16 인지적 이미지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84
표 17 정서적 이미지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85
표 18 관광자원 활용가치에 관한 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86

표 19 제주해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	86
표 20 인지적 이미지/정서적 이미지가 활용가치에 미치는 영향	88
표 21 방문횟수, 체류기간, 연령별이 인지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89
표 22 가설검증결과 요약	90
표 23 설문조사 방법	90
표 24 인지적 이미지에 대한 평균차이분석	91
표 25 정서적 이미지에 대한 평균차이분석	92
표 26 제주해녀 이미지의 활용가치에 대한 평균차이분석	93

〈그림 차례〉

그림 1 제주해녀의 속상별 구분: 문화의 범주, 작업의 범주	8
그림 2 제주해녀의 속상별 구분: 규범의 범주, 공간의 범주	8
그림 3 제주해녀의 7개 가름	12
그림 4 기존 해녀생태유산 현황	13
그림 5 해양저원의 분포와 작업자의 분류	16
그림 6 제주해녀의 변천과정	22
그림 7 자신의 숨만큼만 머물면서 바다가 주는 만큼만 가져오는 해녀	33
그림 8 잠수굿	34
그림 9 <병담병주>원본	37
그림 10 해녀항일기념탑 및 해녀5인 대표사진	38
그림 11 잠녀사진	38
그림 12 제주해녀박물관 전시 공간	41
그림 13 제주해녀축제	43
그림 14 제주해녀노래공연	44
그림 15 해녀물길공연	46
그림 16 해녀물진체험	46
그림 17 해녀석상	47
그림 18 해녀독채민박	47
그림 19 세화 해녀 잠수촌 식당	50
그림 20 김녕리 해녀마을 '만제영어조합법인' 식당	52
그림 21 일본해녀 '아마' 들의 밥상	55
그림 22 해녀기념품이미지	56
그림 23 해녀인형이미지	58
그림 24 제주해녀벽화	59
그림 25 2018F/W 잠수복·테왁 등 모티브 컬렉션	62
그림 26 [엄마는 해녀입니다] 해녀이미지	65
그림 27 연구모형	70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무형문화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해 내려온 전통예술로서, 민족의 정서와 삶이 깃들여 있는 가치성이 매우 높은 문화재이다. 형체가 없어 영속성을 지니지 못하고 가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존·전승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져 커다란 문화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더욱 절실하게 보존·전승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갖게 된다. 문화유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주로 정책을 통해 나타나며 정책은 기초적이고 원칙적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을 세워야 하며,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중요한 일환으로써 지원과 활성화정책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11월 30일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제주해녀문화가 지닌 문화적 가치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제주해녀문화가 제주라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자연친화적인 어업방식을 통해 생태 환경을 유지하며, 관련 기술과 지식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제주해녀문화는 2015년 이미 어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제주해녀어업'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되었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이어 국내에서는 전국의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해녀는 이제 보호되어야 할 유산으로서 3관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FAO 세계농업유산시스템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제주 해녀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물질에 적합한 특이한 체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복된 물질과 훈련을 통해서 강하고 능숙한 해녀로 거듭나는 것이다. 과거 제주도 해안 마을의 소녀들은 '애기바당'이라고 부르는 얇은 바다에서 물질을 배우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해녀의 삶이 더 이상 모든 소녀들이 따라야 할 자연스러운 삶이 아닌 것이 되면서 해녀라는 직업은 고민스런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제주해녀는 1970년대 약 15,000명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젊은 층의 기피로 급격히 고령화되어 30세 미만의 해녀는 없는 상태이며 현재는 약 4,000명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제주 해녀현황을 살펴보면 현직해녀 수는 3,985명으로 2015년도에 비해 39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50세 이상의 고령자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제주해녀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해녀문화 관광활성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주해녀문화는 그 자체로 생업이자 문화인 살아 있는 유산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가장 큰 요인은 제주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라 할 수 있다. 이 공동체 시스템이 문화적으로 갖는 의미는 크다. 그리고 이러한 유산의 계승·보존을 위한 관리 측면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문화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지원을 활발히 해왔다. 이는 문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관리 목표와 내용 측면에 있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고찰과 함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녀문화의 유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제주해녀이미지 활용 현황 검토를 통하여 제주해녀이미지의 관광자원 활용가치를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주해녀문화의 유산 가치를 보호·전승하기 위해 관련 활성화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제주해녀문화 관련분야에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해녀문화 관련 참고자료들을 조사하고 관련된 제도들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유산으로서 제주해녀의 의의: 개념, 연혁, 현황, 제주해녀의 특수성: 역사적 생활방식,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변천과정, 제주해의 문화정책과 연구동향, 제주해녀 이미지 속성: 인지적, 정서적 이미지 등 유산으로서의 관리 방향성을 고찰함으로써 제주해녀이미지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둘째로, 위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제주해녀이미지 연구 설계 및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설계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증으로 분석하고 결과 해석하였다. 넷째, 위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에 따라 주요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제주해녀이미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전 제주해녀 보존 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 논문자료, 행정자료, 신문자료, 발간자료, 해녀박물관 통계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로 진행하였다.

〈표1〉 연구절차 및 내용범위

연구단계	연구내용		
연구의 방향성 설정	▲연구의 배경, 목적, 범위, 방법, 선행연구		
이론적 연구	▲제주해녀의 의의: 개념, 연혁, 현황 ▲제주해녀의 특수성: 역사적 생활발식,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변천과정 ▲제주해의 문화정책과 연구동향		
제주해녀이미지	유산이미지, 역사적 이미지		
	▲인 지 적 이미지/구성요소/개념	관광자원적 이미지	제주해녀박물관
			제주해녀축제
			제주해녀공연 및 체험
			제주해녀촌 및 해녀 민박
			제주해녀 음식
			해녀토산품/기념품
	활용적 이미지	해녀이미지 브랜드화	
해녀잠수복 문화콘텐츠 활용			
▲정서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 구성요소/개념			
연구 설계	▲연구의 모형 및 가설 설정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설문지 구성 ▲자료의 분석 방법		
실정분석	▲가설검증		
결론	▲연구결과 및 시사점 도출		

II. 이론적 고찰

1. 제주해녀의 의의와 특수성

1) 의의

(1) 개념

제주도 해녀가 지닌 기술 및 문화를 총칭한다. 제주 해녀문화는 크게 바닷 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주술의식인 잠수 굿, 물질을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인 해녀노래 등으로 구성된다.

제주 해녀는 산소통 없이 바다에 들어가 수심 10~20m 정도에서 1~2분간 잠수를 하며 해산물을 채취한다. 잠수를 끝낸 해녀는 물 위로 올라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휘파람 소리와 비슷한 숨비소리를 낸다. '숨비'는 제주도 사투리로 잠수를 뜻한다. 하절기에는 6~7시간, 동절기에는 4~5시간 일하며 일 년에 약 90일 정도 바닷 속에서 채취 활동을 한다.

제주 해녀는 다른 지역의 해녀와 달리 입어권을 가지고 있어 어촌계 및 해녀회 등의 공동체를 구성해 문화를 전승해 오고 있다. 부산, 울산 등에서 해녀는 개인적인 직업인 반면 제주 해녀는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질 기술이나 해양 지식 등을 전수하며 대를 이어오고 있다. 유교 문화가 깊게 뿌리박힌 한국에서 제주 해녀는 드물게 주도적인 경제 주체로 활약한 여성이기도 하다. 이들은 해녀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를 이끌고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¹⁾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작업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협의의 개념으로 '물질기술

1)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48852&cid=43667&categoryId=43667>

과 민속지식'을 바탕으로 생겨난 해녀의 전통문화인 신앙(영등굿, 잠수굿, 해신당), 해녀노래, 해녀공동체, 도구와 옷, 언어, 공간, 관습 등을 포함하며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생업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녀문화는 해녀가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제주경제를 이끌었고, 1932년 근현대사의 해녀항일의 산증인으로, 조선시대에는 진상부역을 담당했던 역사를 거치면서 해녀들의 생활방식, 출향, 공동체, 의식주, 의식, 결혼 등 제주해녀의 삶 전반을 포함하다.²⁾

종합하면 제주해녀문화는 제주해녀의 전통문화인 신앙(영등굿, 잠수굿, 해신당), 해녀노래, 해녀공동체의 바다 이용 관련 민속지식과 작업 기술, 도구와 옷, 언어, 공간, 관습 등을 포함하며 살아있는 유산으로써 생업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2) 연혁

문헌을 살펴보면 1105년(고려 숙종 10) 탐라군(耽羅郡)의 구당사(勾當使)로 부임한 윤응균이 “해녀들의 나체(裸體) 조업을 금한다.”는 금지령을 내린 기록이 있고, 조선 인조 때도 제주목사가 “남녀가 어울려 바다에서 조업하는 것을 금한다.”는 엄명을 내렸다.

제주에는 1443년(세종 25년) 9월 제주목사로 부임한 기간이 바다에서 전복을 따는 잠녀들의 고통을 목격한 뒤 3년 재임 동안 전복을 밥상에 올리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1628년(인조 6년)부터 1635년(인조 13년)까지 8년간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한 이 건이 유배 중에 쓴 '제주풍토기'에는 미역을 채취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잠녀'가 등장한다.³⁾

물질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섭라(제주)에서 야명주(진주)를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삼국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남자인 포작인(鮑作人)들이 전복을 채취해 진상해 온 것으로 나와 있으며, 1629년 이건의 「제주풍토기」에 해녀들이 전복을 채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해녀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이익태의 『지영록』, 위백규의 『존재전서』 등 여러 문헌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형상의 『탐라순력도』 〈병담병주〉(1702년)에서는 지금의 용두암 부근에서 물질하고 있는 해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좌혜경·강정식, 2014. “해녀문화 실태조사연구 및 지속가능한 보전방안”, 제주학연구 12: 7

3) 한라일보 2017.01.02,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83282800554819020>

〈조선왕조실록〉 숙종 40년(1714년) 8월 3일조의 기록에도 ‘해녀’라는 표기가 보인다.

해녀가 제주 여성의 강인함과 근면함의 상징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제주 어장을 침탈하면서부터이다. 제주 주변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 형성하는 천혜의 어장이어서 다양한 어종을 보유하고 있다. 사철 전복과 소라, 미역, 감태 등을 채취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해녀가 발달할 수 있었지만 일찍이 선진어업을 받아들인 일제는 제주바다를 수탈기지로 삼았다.

일본 어민들은 1860년대부터 제주에 잠수기선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제주에는 총칼로 무장한 일본인 어민들에게 제주의 어민들이 무차별 살해되는 사건이 이어진다. 1898년 1월 제주에 유배된 김윤식은 ‘속음청사’에 “멸치잡이 배와 일본 사람의 채복선(採鰻船·전복잡이배·잠수기선)이 바다 가운데에 가득하다”고 1899년 여름 용연 앞바다의 풍경을 기록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러한 수탈이 더욱 악랄하게 자행된다. 이후 잠녀조합을 결성한 잠녀들은 일제를 상대로 생존권 투쟁을 펼치기 시작한다. 1932년 1월 구좌면과 정의면 일대 잠녀들은 세화오일장이 열리는 날 세화리 주재소를 순시하던 제주도사 다구치(田口禎熹)를 포위하고 “잠녀의 권익을 옹호하라”며 격렬히 투쟁해 다구치가 달아나는 일도 있었다. 당시 투쟁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돼 잠녀 수십 명이 검거되고 6개월 동안 고초를 겪기도 했다.

19세기 말 일제의 제주어장 침탈로 해산물 채취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다른 지역으로 물질을 나가면서 등장한 ‘출가해녀’들의 수가 이 즈음 급증하기 시작했다. 해녀들의 진출지역은 한반도 남부에 머물지 않았다. 한반도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다롄(大連)과 칭다오(靑島),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반경을 넓혔다. 현재 독도를 지키는 유일한 해녀 역시 제주 출신이다.⁴⁾

‘잠수’는 ‘물질하는 아주머니’라는 뜻으로 1953년 수산업법 개정 이후 행정용어로 사용, ‘해녀’나 ‘잠녀’가 계집여자가 들어있는 비어란 관점에서 존칭의 의미로 ‘잠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도내 역사 관련 기록상에 남은 해녀축제는 1966년 6월 28일 행해졌으며, 행사 내용으로 개인경기 200미터 수영, 소라와 전복 따기, 노 젓기, 보물찾기, 릴레이, 미스잠수선발 대회, 의상선발 대회 등이 포함된다.⁵⁾

4) 한라일보 2017.01.02,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83282800554819020>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연구”: 15

출향해녀는 19세기 말부터 제주를 떠나 국내의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등지와 해외로 바깥물질을 나간 해녀를 일컫는다. 제주해녀들이 섬이나 먼 바다 어장으로 이동할 때 노를 저으며 불렀던 ‘노 젓는 소리’를 총칭하여 해녀노래라 한다. 해녀들은 바다 작업장을 오갈 때 직접 노를 저었는데 흥을 돋우기 위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을 즉흥 사설로 엮어 노래하였다. 해녀집단 공동체의 정서와 인식이 잘 표출되고 있어 구비 전승되고 있다. 해녀노래는 1971년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⁶⁾

1985년을 전후하여 해녀보호 차원에서 마을마다 현대식 탈의장을 설치하였는데 개량 잠수복인 고무옷의 보급에 따라 온수목욕시설이 갖추어진 탈의장은 필수 시설이 되었으며 불턱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2008년 12월2일 제주 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는 시도민속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었다.

2015년 12월 16일 제주해녀어업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되었다.

2016년 11월 30일 열린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한국의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2017년 05월 01일 해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었다.

(3) 현황

① 제주해녀문화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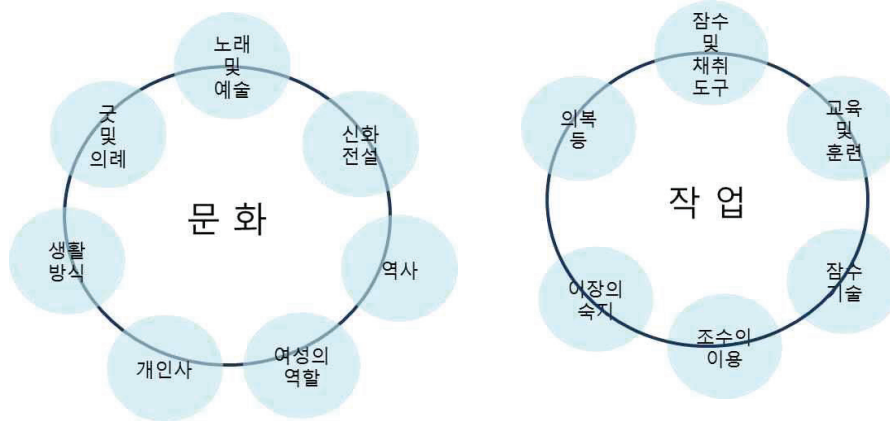
제주해녀문화·Culture of Jeju Haenyeo(Women Divers)의 범주는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이다. 제주도, 제주도 인근 섬과 내륙 해안지방을 범위로 한다. 잠수장비 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문화, 물질을 하는 해녀들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잠수굿’, 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 ‘해녀노래’, 어머니에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세대간 전승되며 무형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역할 강조’, 제주도민 대부분 알고 있는 해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등이 주요내용이다.⁷⁾

제주해녀 문화는 크게 제주해녀 고유의 ‘문화’, 생업으로서의 나잠 ‘작업’, 사회적 합의로써

6) 제주해녀박물관홈페이지: <http://www.jeju.go.kr/haenyeo/haenyeo/haenyeo.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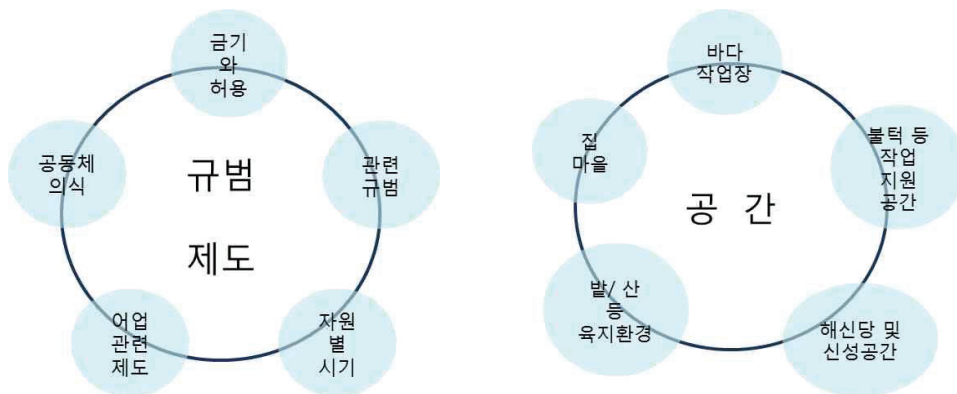
7) 중앙일보 2016년10월31일: <http://news.joins.com/article/20804381>

‘규범과 제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인 ‘공간’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요소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제주해녀문화의 속성별 구분: 문화의 범주, 작업의 범주⁸⁾

제주해녀 문화는 해녀 활동과 관련하여 전승되어 온 다양한 신화, 전설, 노래 및 전통예술, 굿과 의례 등을 포함하며 과거와 현대의 생활방식의 변화, 역사, 그리고 해녀를 통한 여성의 삶에서의 역할, 개인사 등을 포함한다. 이는 제주해녀 정체성의 중심요소로 볼 수 있고, 생업으로써 해녀활동과 관련된 의복, 도구(빗창, 소중이, 태왁 등), 잠수기술, 어장과 바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 전반에 걸친 요소를 포함하며 실제 해녀의 전승과 지속에 관련된 중심 요소이다.



〈그림 2〉 제주해녀문화의 속성별 구분: 규범의 범주, 공간의 범주

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연구”: 18

규범 분야에서는 전승해 온 규범, 공동체의식, 금기 등과 현대 어업관련 제도, 조례를 포함한 지원제도, 문화재보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유네스코 등의 제도까지 포함한다. 공간은 제주 해녀문화의 산실인 환경을 포함하며, 자연 환경(해양, 해안 및 육지)과 마을 등 인공 환경을 포함한다. 또한 공간에 조성된 제주해녀문화의 물리적 환경, 즉 불턱, 신성공간(해산당 등) 및 작업관련 공간을 포함하고 있어 제주해녀문화를 둘러싼 환경 전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의 특정한 공간은 제주해녀문화가 생성되고 지속되는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볼 수 있다.9)

② 제주해녀 관련 통계

〈표2〉 총괄¹⁰⁾

(단위: 명)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계	9,500	9,494	4,952	4,818	4,548	4,676	
현직해녀	4,005	4,377	2,290	2,481	1,715	1,896	
전직해녀	5,495	5,117	2,662	2,337	2,833	2,780	

※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 12월 현재 통계자료

〈표3〉 현직해녀현황

(단위: 명)

구분	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4세	75~79세
제주시	2,290	-	9	39	284	730	417	485
서귀포시	1,715	-	3	7	119	516	407	425
계	%		0.3	1.2	10.1	31.1	20.5	22.7

※시별·연령별

현재 제주도에 해녀증 보유 기준으로 전직과 현직을 포함해 9,500명(2016년 말 기준)의 해녀가 등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고령과 이직 등으로 실제 물질을 하지 않는 전직해녀를 제외하고 전업으로 물질을 하는 현직 해녀는 4,005명이다. 연령별로는 30~39세 12명, 40~49세 46명, 50~59세 403명, 60~69세 1,246명, 70~79세 824명, 80세 이상 564

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연구”: 19

10) 제주해녀박물관 해녀현황통계자료 참고.

명이다. 최고령 해녀는 물질 경력 77년의 1923년생 이봉숙(우도면) 할머니였지만 지금은 물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연소는 1985년생 정소영(추자면)씨이다.

〈표4〉 연도별해녀수량 현황¹¹⁾

연도별구분		'70	'80	'90	'00	'07	'09
해녀수		14,143	7,804	6,827	5,789	5,279	5,095
연령 구성 비율 (%)	30세미만	31.3	9.8	4.3	0.1 (3)	-	-
	30~49세	54.9	60.7	44.2	22.1 (1,282)	6.7 (356)	4.2 (213)
	50세이상	13.8	29.5	51.5	77.8 (4,504)	93.3 (4,923)	95.8 (4,882)
연도별구분		'10	'12	'13	'14	'15	'16
해녀수		4,995	4,574	4,507	4,415	4,377	4,005
연령 구성 비율 (%)	30세미만	-	-	-	-	-	-
	30~49세	2.5 (125)	1.9 (87)	1.4 (66)	1.5 (67)	1.4 (63)	0.3 (12)
	50세이상	97.5 (4,870)	98.1 (4,487)	98.6 (4,441)	98.5 (4,348)	98.6 (4,314)	99.7 (3,998)

제주에서 생산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곳은 바다다. 쿠로시오 난류 영향으로 일 년 내내 어로활동이 가능해 일찍부터 해녀들의 작업이 시작됐다. 1970년도만 해도 1만 4,000명을 웃돌던 제주해녀는 1980년에 7,804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때부터 제주해녀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시작됐다. 새로운 품종의 감귤이 도입돼 제주 전역으로 재배가 확대되고, 관광산업이 태동하면서 제주여성들에게 물질 이외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1970년 1만 4,143명에 달하던 해녀는 1980년 절반 수준인 7,804명으로 급감했다. 이어 1990년 6,827명에서 2000년 5,789명, 2010년 4,995명으로 제주해녀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4,005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물질을 피해 안정된 직업을 찾아 나선 청장년층의 해녀에 대한 기피 현상과 고령화 추세로 지난해 70대 이상 해녀가 2,298명으로 전체 해녀의 57%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3년간 연평균 6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장년층의 기피와 고령화 추세로 말미암아 1990년까지만 해도 50세 이하와 50세 이상 비율이 48.5:51.5였지만 현재는 50세 이상 해녀가 전체의 98.6%를 차지하

11) <https://blog.naver.com/mlb6565/221132931736>

고 있다. 반면 신규 해녀 가입은 2012년 14명, 2013년 14명, 2014년 29명, 2015년 13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해녀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해녀 정년을 80세로 가정했을 때(물론 물질은 정년이 없어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한 80대까지도 가능하다. 80세 이상 제주 해녀는 현재 564명) 10년 후면 약 60%, 20년 후면 약 84%인 3,364명이 줄어든다.

한편 제주 바다에는 해남도 현재 7명이 활동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해남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해남이 각각 44년의 물질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제주시 추자면 해남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해남이 각각 31년과 23년 동안 물질을 해오고 있다. 서귀포 대정읍 하모리 해남 5년, 제주시 용담동 해남 1년, 서귀포시 남원읍 해남도 1년의 물질 경력이 있다.

③ 제주해녀박물관 및 제주해녀축제 관람 현황

제주도는 제주공항, 방송 등에 박물관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관광안내소마다 리플릿을 배부하는 홍보활동과 함께 SNS, 구글컬처럴인스티튜트 등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에 2015년 13만5천여 명, 2016년 16만여 명, 2017년 8월 기준 10만여 명이 박물관을 다녀갔다. '숨비소리, 바다건너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제9회 제주해녀축제가 2016년 9월 25일 제주 해녀와 도의 출향해녀, 관광객, 도민 등 연인원 4만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구체적인 내용을 해녀 인지적 이미지에 기술하겠다.

④ 제주해녀 자원 현황

○ 지역별 제주해녀 생태유산 현황

지역적 특성을 살려 7개 가름(오일장 가름, 해녀박물관 가름, 별방진성 가름, 토끼섬 가름, 철새도라지 가름, 지미봉 가름, 소금밭 가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름'은 제주어로 '한 마을 안에서 작은 단위로 구분한 동네, 한 마을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구역' 또는 '마을 안의 구분된 거리'를 의미하다. 각 가름의 구체적인 유산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3〉제주해녀의 7개 가름¹²⁾

〈표5〉제주해녀의 7개 가름의 유산¹³⁾

구분	유산
오일장 가름	현 오일장, 옛 오일장터, 세화주재소터(현 구좌파출소), 모사랑물동터, 도래갯물, 중머들코지, 정순이빌레할망당, 해녀항일항쟁 기념비
해녀박물관 가름	순비기나무, 폭낭알(쉽팡), 용문사, 비석군, 환해장성, 삼삼당, 서동불턱, 만물(용천수), 서문동 갯담, 발담길, 공동창고
별방진성 가름	서문 망대, 별방진성, 옛 성담, 발담, 심신할망당(본향), 비석거리, 서동 마을길, 각시당, 환해장성, 한개창, 알짓물
토끼섬 가름	하도초등학교, 보존가옥, 굴동포구, 토끼섬, 황근자생지(웃개), 영등바당, 발담
철새도래지 가름	철새탐조대, 용항포, 대조개왓, 용천수, 금봉사
지미봉 가름	간척지, 해수관상어센터, 조개왓, 중통굴포구, 불턱
소금밭 가름	지미봉수터, 고망난들, 생개납돈짓당, 두문포구

○기존 해녀생태유산 현황

기존의 문헌과 자료 등을 통해 해녀생태유산, 즉 해녀의 물질과 발일에 관련된 자연, 문화, 생활 유산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제주특별자치도, 2013.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연구": 61

13) 제주특별자치도, 2013.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연구", 참고 재정리



〈그림4〉기존 해녀생태유산 현황¹⁴⁾

2) 특수성

(1) 역사적 생활양식

해녀의 기원은 인류가 바다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시작한 원시산업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 해녀의 역사도 고고학적으로 볼 때 기원을 전후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어부와 해녀를 관장하는 신당이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문헌으로는 1105년 (고려 숙종10) 탐라군의 구당사로 부임한 윤응균이 “해녀들의 나체 조업을 금한다” 는 금지령을 내린 기록이 있고, 조선 인조 때도 제주목사가 “남녀가 어울려 바다에서 조업하는 것을 금한다” 는 엄명을 내렸다.

이건의 “제주풍토기”에는 제주 해녀들의 생활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녀들이 관가나 오리들에게 가혹하게 수탈당하고, 생활이 매우 비참함을 말하고 있다.

14) 제주특별자치도, 2013.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연구": 145

예부터 제주 여성은 밭에서 김을 매지 않으면 바다에서 물질을 해야 하는 운명에 순종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소녀들은 7 ~ 8세 때부터 해엄치는 연습을 시작하여 12~13세가 되면 어머니로부터 두렁박을 받아 얇은 곳에서 해엄쳐 들어가는 연습을 했다. 15~16세가 되면 바닷속에서 조업(물질)을 시작하여 비로소 잠녀(해녀)가 되고, 17~18세에는 한몫잡이의 해녀로 활동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직업인으로서의 해녀는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되어 있는데 외래인들은 해녀를 유별난 존재로 주목한다. 여인들이 나잠어업을 하기 때문일 터인데, 특이하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물질(나잠어업) 자체가 가냘픈 여인들인데도 거친 파도 일렁이는 푸른 바다를 무대로 무자맥질하면서 해조류, 패류 등을 캐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점에서 이색적 직종이란 점이다.

둘째, 해녀들이 지니는 기량과 의지가 초인적이란 사실이다. 제주 해녀들은 바닷물 속 15~20피트에서 물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필요에 따라선 70피트(약 21m)까지 들어가서 2분 남짓 견딘다는 것이다.

셋째, 한 달 평균 15일 이상 물질할 수 있다는 점이고, 분만하기 직전과 직후에도 무자맥질을 한다는 사실이다. 한 달 15일 이상 물질할 수 있다 함은 그들의 생림 및 인내력을 주목할 이지 바람, 물살 등 바다밭의 실정에 따라 실제로 15일 남짓 물질하는 달은 제주바다에서든, 외국의 바다에서든 그리 흔치 않다.

넷째, 행동반경이 동북아시아 일대로 뻗었다는 사실이다. 제주섬 연해에서만 무자맥질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곳곳의 연안과 일본, 중국, 러시아 바다에까지 진출했었다.

① 제주도 해녀의 바깥물질과 현지 정착

해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한 제주도 부녀자들의 이동은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제주해녀, 곧 제주도 해녀의 역사에 있어서 주요한 특징이다. 해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타지로 이동해 한시적으로 거주하다 귀향하는 것을 두고 제주해녀들은 “육지에 갔었다”거나 “바깥에 갔었다” 혹은 “영업 갔었다”는 표현도 한다. 이것은 모두 물질로 돈을 벌 수 있었던 타지 출어(出漁)를 말하는 것으로, 1920년대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보다 길게는 1970년대 초반까지 이뤄졌다. 고 김영돈 교수는 “바깥물질”이라고 명명하였다. 해방 이후의 출어는 식민지시기의 이동

“관행”이 인정되어 이뤄진 것도 있으나, 이후 수산업법의 정비로 타지의 어장에 입어(入漁)하는 것은 불허됨으로써 제주해녀들의 바깥물질은 공식적으로는 중단되었다.

제주해녀들의 이동은 현지 정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오히려 귀향을 염두에 두고 목돈 마련의 기회로 타지로 나간 것이었다. 가구경제(家口經濟)의 기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제주도 지역경제에도 기여하였음은 잘 알려져 왔다. 제주해녀들의 바깥물질은 식민지 시대 제주도 여성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경제적 기회로써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통적’ 출어 문화는 아니었다.

해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타지에 출어하는 것은 일본 아마의 오래된 출어 문화이다. 그리고 20세기 전반에 일어난 제주해녀(잠녀)와 일본 아마의 타지 출어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제주해녀들이 이동은 식민지시기에 앞서있었으나, 집단적이며 그 규모가 이전과 비교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식민지시기이다. 이것은 일본의 아마가 한반도 출어와 비교할 때 주요한 차이점이다. 제주해녀와 아마가 이동한 주요 목적은 식량자원이기 보다 일제의 군국주의 확산과 더불어 요구되었던 산업원료와 군수품을 위한 수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제주해녀(잠녀)들의 이동의 주요한 요인으로는 (1)일본 잠수기선의 한반도 진출로 인한 어장의 황폐화, (2)수산 및 군수산업의 원료로써 해초 채집이 이뤄졌던 점, (3)노동력의 수요가 ‘모집’을 통해 이뤄졌던 점, (4)해상교통의 발달로 이동이 용이했던 점, (5)제주도 부녀자들의 현금소득의 기회로 작용하였던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제주해녀의 출어 패턴과 규모는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해 온 바대로 계절적인 한시적 이동이었으며, 합병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전개되었다. 봄에 타지로 나가 가을추석에 맞춰 귀향하였으며, 대개는 “모집인”을 통해 몇 마을 부녀자들이 이십여 명씩 출어하였다. 그리고 출어한 지역은 한반도와 일본 외에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중국의 대련, 청도 등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동한 곳에서 채취한 해산물은 전복과 해삼 외에도 감태와 우뚝가사리 등이었다. 한편 일본의 아마는 경상남도에서 출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마들이 이동했던 한반도는 제주 해녀들 또한 “바깥물질”을 했던 곳으로 이들이 서로 조업을 함께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상호 어떠한 사회적 관계 속에 있었는지는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15)

② 제주해녀 “물질”

15) 제주해녀박물관, 2015. "제주해녀와 일본아마 비교 연구", 한국자치경제연구원:25

○작업 기량에 따른 분류: 상군, 중군, 하군

제주도에서는 물질을 하는 해녀(잠수)들 가운데에서도 수심 깊이 또는 바다 멀리 나가 자맥질하는 사람들을 상군(上軍), 중군(中軍), 하군(下軍)으로 분류한다. 바다 속으로 잠수하는 것은 고막의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여 잠수법 자체만으로 수심 깊은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지면 다시 갯가 근처에서 물질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물질을 익혀 먼 바다로 나갔던 노련한 해녀들의 경우 기력이 쇠해 노년이 되어도 그녀를 하군이라 쉽게 낮춰 부르진 않는다. 곧 “상군해녀(잠수)”라는 것은 물질기량만큼이나 오랜 기간에 걸쳐 얻게 되는 호칭이며 단순히 기량만 좋은 사람을 말하지도 않는다.

반면, 하군이라 하여 반드시 물질 못하는 사람인 것만도 아니다. 숨을 참는 시간은 점차 자신의 노력으로 늘려갈 수 있지만, 고막의 통증은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때문에 자맥질 자체를 잘 함에도 수심 깊이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들 하군은 그들의 또 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곧 수심 얕은 곳에서 서식하는 오분자기 채취에 있어서는 오히려 상군들보다 더 노련하다. 때문에 “오분작 상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해양자원의 분포와 작업자의 분류 >



<그림5> 해양자원의 분포와 작업자의 분류¹⁶⁾

○작업형태에 따른 분류: 뱃물질과 갯물질

16) 안미정, 2008. "제주 잠수의 바다발", 제주대학교출판부.

물옷의 하의인 '물소중이'는 어깨끈이 한쪽만 달린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과 흡사하다. 물적 삼은 덧입는 해녀복으로 주로 늦가을부터 봄까지 착용했다.

해녀들이 물옷을 언제부터 입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702년에 그려진 '탐라순력도'에 물소중이와 같은 옷을 입고 물질하는 모습이 묘사된 것으로 보아 18세기 이전부터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질기술은 스티로폼 테왁에 무거운 돌을 매달아 부표를 한 장소에 고정시킨다. 자신의 몸을 끈으로 고정하지 않아 자유롭게 잠수해 10~20m까지 들어간다. 제주해녀는 갯물질이나 뱃물질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도움은 받지 않는다.

가치도(갯물질)

가치도는 누구의 도움없이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다. 나무통(이소오케)에 7~8m 길이의 밧줄을 허리에 연결하여 멀리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한다.

후나도(뱃물질)

배를 타고 나가 깊은 곳에서 물질할 때 주로 부부가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해녀가 물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면 배 위에서 남자가 해녀 허리에 연결된 밧줄을 끌어당긴다.

○해녀공동체

해녀들은 마을단위의 어촌계에 가입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루며, 해녀회나 잠수회를 조직하여 해녀들의 입어시기·공동채취·입어관행 등을 자치적으로 결의하고 수행한다. 또한 그들은 해산물의 공동양식과 공동채취로 공동수입을 확보하여 마을의 번영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물질 작업은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함부로 바다에 뛰어들어 혼자 물질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해놓은 규약과 법에 따라 행동한다. 물질은 언제나 공동으로 작업에 임하게 되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동으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해녀들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한 말 부터 "계"형태로 자생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출가 해녀의 권익보호 목적으로 어업 공동체가 조직되었다.

③ 제주해녀의 신앙과 의례

해녀들의 속담 중에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해녀의 물질 작업

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해녀들은 언제나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신에게 의지한다. 해녀들은 수시로 바닷가에 있는 해신당에 찾아가 제물을 준비하여 물질작업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한다. 그리고 영등달인 음력 2월에 영등신을 위한 영등굿을 한다. 영등신은 해상의 안전과 해녀와 어부들에게 풍어를 갖다 준다고 믿는 신으로 음력 2월 초하루 제주도로 들어와 바닷가를 돌면서 미역, 전복, 소라, 천초 등의 씨를 뿌려 해녀들의 생업에 풍요를 주고 같은 달 15일 우도를 거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해신당은 해녀들이 험난한 삶을 무속신앙에 의지하고 극복하기 위해 만든 곳으로, 온갖 삶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해신당에서 치러지는 무속 의례는 영등굿과 같은 공동으로 치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개인의례로 정초에 지내는 신과세제(新過歲祭)와 뱃고사를 겸하는 정월보름 당굿을 지낸다. 해신당에는 주로 요왕과 선왕이 좌정해 있다. 해신당을 돈짓당, 개당이라고 한다. 우도의 하우목동에서는 해산물의 풍요와 해녀·어부의 안전조업을 기원하며, 요왕과 뱃선왕, 돈짓당 한집 세 신위를 모신다.

영등신을 맞아들이고 영등신을 치송하는 영등환영제와 영등송별제를 영등굿이라고 한다. 영등신은 어부나 해녀들에게 해상안전과 생업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음력 2월초하룻날에 들어와 2월 14일에 영등송별제를 받고 나간다.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칠머리당에서 치러지는 영등굿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음력 3월 8일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에서 진행되는 잠수굿은 영등굿과 별개로 행해지는 곳으로 제주도 해녀들의 대표적인 의례이며 축제이다. 해녀들은 1년 동안 비용을 마련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등 생업과 의례가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준다. 의례과정에서 <요왕맞이>는 바다를 관장하는 요왕龍王을 맞아들여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하는 제차이며, <씨드림>은 해녀들의 채취물인 전복, 소라, 우뭇가사리, 톳 등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좁씨를 바닷가에 뿌리는 의례이다.¹⁷⁾

17) Google Arts & Culture: 2016. 3. 7.

(2)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던 이유는 자원고갈, 황금만능주의 같은 전 세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16년 12월 1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신청한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에서 '등재 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 결과를 '등재', '정보 보완', '등재 불가' 등으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제주해녀문화가 등재 평가를 받은 것이다.

평가기구는 “제주해녀문화유산의 등재는 무형유산으로서 여성 노동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세계적인 인식을 높이고, 해녀 공동체와 유사한 관습을 보유한 다른 공동체와의 문화 간 대화를 장려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구는 또 “유산의 등재는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을 고무할 것으로 기대한다. 풍부한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서 시와 소설, 드라마, 영화,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장르에서 인기 있는 소재”라고 제주해녀문화유산을 설명했다.

제주해녀문화의 등재 여부는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제11차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 회의에 중앙정부와 함께 대표단을 보내 제주해녀문화유산 등재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내년에는 제주해녀어업을 유엔 산하 세계 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올리기 위해 2011년 7월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를 구성해 제주해녀문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절차를 밟아왔다. 2013년 12월에는 문화재청이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신청 종목으로 선정했고, 2014년 3월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해 2016년에 심의가 이뤄졌다.

등재 신청한 제주해녀문화의 주요 내용은 잠수 장비 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문화, 해녀들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잠수굿,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인 해녀노래, 모녀간, 세대 간 전승되는 무형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역할 등이다.¹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사무국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제11차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위원회를 열고 한국시간 12월1일 새벽 0시25분 제주해녀문화(Culture of Jeju Haenyeo-Women Divers)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결정했다.

18) 한겨레, 2016년 11월 1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8312.html>

등재에 앞서 문화재청, 제주도는 제주해녀문화의 특징을 상세히 정리해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제주해녀의 개념과 관련 해녀들은 바다 밭을 단순 채취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꾸어 공존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그 과정에서 획득한 지혜를 세대에 걸쳐 전승해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바다 생태환경에 적응해 물질 기술과 해양 지식을 축적했고, 수산물을 채취해 가정경제의 주체적 역할을 한 여성생태주의자(Eco-Feminist)들로 기술했다.

제주해녀들의 물질 기술은 보통 8살을 전후한 나이에 얇은 바다에서부터 수영과 잠수를 자연스럽게 배우기 시작해, 오랜 훈련을 거쳐 보통 열다섯 살 전후로 해녀가 된다. 제주에 해녀가 가장 많았던 1960년대 전후에는 제주 여인들에게 물질을 배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후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제주도의 관광개발정책 등으로 새롭게 물질을 배우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1965년에 약 2만 3,000여 명이던 제주해녀 수는 1975년 8,400여 명으로 급감했고 2017년에는 3,985명밖에 남아있지 않다. 젊은 세대가 유입되지 않아 고령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문화재청과 제주도는 해녀의 사회적 기능을 대상군의 리더십, 노약자에 대한 배려, 공익에 대한 헌신과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공동어장 관리,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의 역할까지 여섯 가지로 규정지었다.

특히 제주도에서 발굴된 선사 유물 중 전복껍질을 가공한 칼(패도)과 화살촉 등이 발굴되고 있어 해녀의 역사가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도 유추할 수 있다.

대상군의 리더십은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 전체 리더 격인 대상군 해녀가 다른 해녀의 작업을 안전하게 이끌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화합과 마을 전체의 공익에도 기여하는 점이다.

노약자에 대한 배려는 늙고 허약한 해녀를 위해 따로 마련한 할망바당, 신입생 해녀에게 그 날 잡은 해산물 중에서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선물하는 풍습(게석) 등이 해당된다.

공익에 대한 헌신과 참여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마을길 정비, 학교 건물 신축 등을 지원하는 사례를 꼽을 수 있다. 바다 한 구역을 정해 수익금 전액을 이장에게 주는 이장바당,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육성회비를 충당해주는 학교바당 같은 규정도 여기에 속한다.

민주적 의사결정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 자유토론의 시간을 충분히 거친 후 모든 조직원이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만장일치제를 택하는 모습이다. 의견차이가 심해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원로 대상군의 의견을 따르면서 흡사 자생적으로 발생한 민회(citizen assembly)를 떠

올리게 한다.

공동어장 관리는 마을 앞 바다를 자신의 발처럼 여기면서 다함께 관리하는 노력을 의미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의 역할은 자원고갈, 황금만능주의, 불평등 사회구조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지속가능한 인류 발전 모델이라는 점이다.

문화재청과 제주도는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제주해녀가 모두 사라지면 물질 기술과 바다에 대한 지식, 그들의 합리적인 공동체 운영에 대한 지혜, 잠수굿이나 용왕굿 같은 풍습이 모두 사라진다. 제주해녀를 ‘살아있는 유산’으로 보존하는 조치가 한시바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제주해녀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다.¹⁹⁾

(3) 변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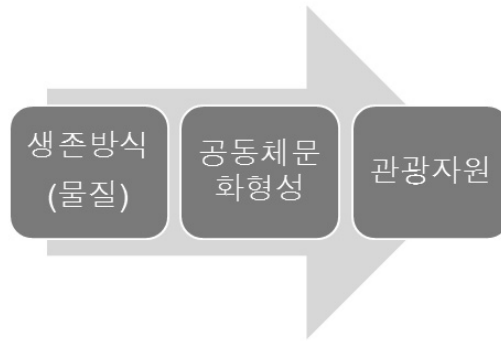
제주해녀 형성초기부터 해방까지 주요 생기, 생업하기 위해서 물질작업을 실시하였다. 1960년대 후반 관광산업 태동 등 제주경제의 다변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관광업에 참여, 전통적 직업관 변화로 해녀 수 점차 감소하다. 2018년 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와 제주해녀문화학회(학회장 장정애)가 공동으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해녀문화를 제주관광발전의 문화콘텐츠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해녀 무형유산 등재를 계기로 해녀협회 구성, 해녀 생업, 여장 지원, 해녀학교,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원 등 수산업차원에서의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 체계화되고 있으나, 제주 사회에서 문화사적 측면의 탁월한 가치평가에 따른 전승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민속분야의 한축으로서만 일부 진행해 왔을 뿐 어업인과 문화민속분야의 측면에서 통합적 접근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문화관광위원회와 제주해녀문화학회에서는 점점 사라져가는 제주해녀 유산에 대한 해녀문화의 문화콘텐츠로서의 관광과 연계된 활용방안 등을 짚어보고 정책방향 제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성대학교 이종문 교수는 <제주해녀문화 관광자원화 방안연구>란 주제로 해녀문화디지털 콘텐츠 실태를 통해 관광자원으로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스템의 체계화, 시공을 초월한 디지털 콘텐츠 체계 마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은 “세계가 소중하게 보전해야 할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를 제주관광발전의 귀중한 자산으로 품격 있게 연계되어 제주인의

19) 제주의 소리, 2016. 12. 01: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4812>

삶과 문화의 긍지를 높이게 되기를 바라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²⁰⁾



〈그림6〉 제주해녀문화의 변천과정(저자 작성)

2. 제주해녀 문화정책 연구동향

1) 제주해녀 문화정책

○ 제주해녀문화 관련정책

정책은 제주해녀문화의 이러한 속성 중 문화, 생업(작업), 제도, 공간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제도적 및 물리적 기반 마련, 보존, 전승, 교류, 연구, 발전 및 진흥, 교육과 체험을 중심으로 제시될 수 있다.

■ 주요내용

- ‘해녀’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마을 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함
-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
- ‘해녀문화산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화적 가치가 내포된 상품을 기획·제작·가공하여 생산하거나 유통, 마케팅 및 소비과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연관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
 - 가.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 나.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여행 및 체험관광 상품 개발
 - 다.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유·무형의 상품 제조 및 서비스
 - 라. 해녀 및 해녀문화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해녀문화사업자’란 해녀문화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함

20) 상임위원회, 2018. 해녀문화를 통한 관광산업의 연계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개발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내용 발췌(제정 2012. 07. 18 조례 제931호)

■주요내용

·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이란 해녀의 문화적 가치가 내포된 상품을 기획·제작·가공하여 생산하거나 유통, 마케팅 및 소비과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모든 연관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함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방송영상, 광고와 관련된 산업

라.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해녀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 제외)과 관련한 산업

마.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함

· ‘디지털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을 말함

·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함

·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에듀테인먼트’란 해녀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말함

2017년 4월 27일 제주해녀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 내용에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지원 정책 ▲해녀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대책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해녀 가입어촌계 지원정책 ▲그 밖에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개발 등을 담겠다고 밝혔다.²¹⁾

2017년 10월 19일에 해녀문화 보존·전승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했다. 해녀어업에 대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해녀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다. 제주도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제2차 제주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1차 기본계획이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초점을 맞췄다

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https://www.council.jeju.kr/index.do>

면, 2차 기본계획은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이후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국내·외 위상 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제주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해녀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 보존 전승 기반 마련을 통한 제주해녀의 생태적 가치와 나눔과 배려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해녀문화 정책이 계획에 포함됐다. 2017년부터 5년간 추진될 제2차 기본계획은 해녀문화전승과 소득보전 사업 등 69개 사업에 총사업비 1,223억 원이 투자된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제주해녀의 자긍심 고취 및 가치 확산, 제주해녀문화 전승 및 교육과 연구지원 강화, 해녀중심의 구심력 확보 및 정책지원 조직의 다각화 추진, 제주해녀 국제위상 제고 및 브랜드화를 통한 산업육성, 제주해녀 문화체험마을 조성 추진, 제주해녀 육성 등 산업적 지원 확대 등이 제시됐다.²²⁾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해녀문화유산과를 신설하고(2017. 7.),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2차 2017. 9.)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주해녀 관련정책을 육성과 관광자원화 방향으로 정립되었다. 주요 정책내용을 다음과 같다.²³⁾

〈표6〉제주해녀 관련정책

관련정책	정책내용
제주해녀의 자긍심 고취 및 가치 확산	해녀 공동체 가치 교육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
	해녀의 전당 건립
제주해녀 전시·공연·홍보 교육과 연구지원 강화	제주해녀 관련 전시 등 홍보
	아카데미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출향해녀, 생애사 등 연구·조사
해녀중심의 구심력 확보 정책지원 조직의 다각화	제주해녀협회 운영 지원
	전국 해녀 네트워크 구축
	특별법 제정 추진
제주해녀 국제위상 제고 브랜드화를 통한 산업육성	국제단체 가입 등 교류 활성화
	해녀의 날 지정
	해녀문화 소재 콘텐츠 개발
제주해녀문화 체험마을 조성	다방면의 의견 수렴한 계획 수립
	운영조직 구성
	해녀유산 조사 및 복원
제주해녀 육성 등 산업적 지원 확대	마을어장 자원 조성
	해녀복 지원 등 조업환경 개선
	소득보전 및 신규해녀 육성

22)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77b6d5677c7745c1affdbadc80ebc224>

23) 제주해녀박물관홈페이지참고.

2) 제주해녀 연구동향

제주해녀의 연구동향은 주요한 제주해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녀와 관련한 문학, 민속학, 역사학, 경제학, 관광학, 사회학, 인류학, 음악학 등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 탐라문화연구원, 제주해녀문화연구원 등 연구에서 주요 해녀의 활성화 방향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연구되었다. 그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2016.10.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제주학회, 2009년 8월,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에 관한 연구(연속간행물), 고은솔, 정상철, 2018.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산경영" 예술경영연구 제45집,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3. "제주 해양유적과 문화 보전·활용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2011. "해녀문화의 세계화와 해녀 소득증대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2015.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제주해녀어업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 "제주해녀사료집",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10. "이여도사나: 제주해녀노래집",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12. "제주해녀옷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 2013.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2015.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별 특성 및 실태조사-제주시편", 제주특별자치도, 2015. "제주해녀 나잡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2016. "국가중요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연구",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13. "해녀문화유산 조사", 제주학연구센터, 2017. "제주해녀음식" 등을 포함되다.

학술논문에 제주 해녀관한연구는 주요 제주해녀문화의 활용방향으로 진행했다. 그 중에 이선화, 2016. "제주해녀 생애사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양진숙, 2017,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김은주, 2017. "헤리티지를 활용한지역 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연구 -제주해녀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등을 포함되다.

3. 제주해녀 이미지 속성

1) 제주해녀 이미지 속성

① 이미지의 정의

이미지는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 되었다.

우리들이 흔히 상용하는 이미지에 대해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인 리프만(Lippmann, 1962:95)은 자신의 저서인 [Public Opinion]에서 이미지를 '우리들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머릿속의 상상의 그림'이라고 했다.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바라는 대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불가피한 차이를 지니게 된다.

이미지와 실제와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근원이 이미지라고 정의하였다.

문경희(1994)는 1950년대에 유행하기 시작한 이미지라는 용어는 현재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기업 이미지', 국가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대중 이미지', '정치후보자 이미지'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미지와 '판에 박힌 생각'은 다르다. '판에 박힌 생각'은 상당히 왜곡되고, 단순화된, 그리고 대상을 향한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수반하는 것이고 널리 인식된 것인 반면 이미지는 대상에 관한 더욱 개인적인 관념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 간의 이미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은영(1991)은 우리 나름의 사고, 취향에 따라 편집되고 만들어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의 덩어리 특유한 감정, 고유한 느낌, '이미지'는 타인이 보고 느낀 자신 모습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보여 줄까' 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여 줄까' 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사전적 정의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및 촉각의 오감각을 통해 경험한 어떤 대상에 대해 인간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상의 총합'이다. 이미지의 개념은 고대 불어의 이마주에서 유래하였다. 이미지는 상(象), 심상(心象), 표상(表象) 등의 뜻을 가지며 인간의 지각활동에 의해 형성이 되고 인물과 사진과 같이 피상적인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영어의 이미지란 말은 원래 라틴어 'imago'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는 '모방하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imitari'와 관련된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특정 대상(특히 사람)의 외적 형태에 대한 인위적인 모방이나 재현'을

뜻한다. 학술용어로는 'image manipulation'이라고 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는 구절에서 '형상'은 곧 이미지를 말한다. 이는 곧 실체(reality)를 의미하기 보다는 실체의 모방이나 재현된 상(象, represented picture)를 의미한다.

또한 철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감각에 의해 지각되는 대상에 관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표상을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함께 생각나는 단어나 느낌의 총체인 이미지는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미지란 실상과 허상, 균형과 조화이다.

로저 에일리스(Roger Ailes)가 "당신 자신이 바로 메세지"라고 한 것도 우리 각 개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창출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결정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뜻으로 정의하였다.

코틀러(kotler, 2000:132)는 이미지를 마케팅 관점에서 한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신념, 생각, 및 인상의 집합이라고 정의한다.

그루닝(Grunning, 1993:121~139)은 이미지라는 것은 커뮤니케이터에 의해 수용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획되거나 주어지는 어떤 것이다.

이미지 개념을 예술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PR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들은 이미지를 인지의 일종으로 보고 현실과 시각적, 감각적, 혹은 공간적으로 유사한 정신적 이미지나 생각으로 보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스콧(Scott, 1996)은 이미지란 거의 지식에 가깝게 되며, 대상으로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 후에야 비로써 형성되는 이미지인 것이다.

그리고 집합적 대상에 대한 대표적 이미지로써 소수의 매우 특징적인 대상을 평가하거나 기술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정의하였다.

다니엘 부어스틴(Daniel Boorstin, 1962)은 그의 저서 [이미지](The Image)에서 이미지를 가관념(假觀念, pseudo - ideals)이라고 했는데 그에 의하면 이미지는 특정 사건에 대한 참 되도 진실한 면을 보여 주기보다는 조작되고 단편적인 면만을 강조한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²⁴⁾

위의 이미지의 개념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7>과 같다.

24) 이선재, 윤두아 지음, 2008, "이미지메이킹 - 셀프마케팅", ㈜교문사.

〈표7〉 이미지의 개념

연구자	개념
리프만(Lippmann, 1962)	이미지는 '우리들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머릿속의 상상의 그림이다.
부어스틴(Daniel Boorstin, 1962)	이미지는 특정 사건에 대한 참 되도 진실한 면을 보여 주기보다는 조작되고 단편적인 면
그루닝(Grunning, 1993:121~139)	이미지라는 것은 커뮤니케이터에 의해 수용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획되거나 주어지는 어떤 것이다.
김은영(1991)	'이미지'는 타인이 보고 느낀 자신 모습이라고 정의하였다.
문경희(1994)	이미지라는 용어는 현재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기업 이미지', '국가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대중 이미지', '정치후보자 이미지'등이라고 정의하였다.
스콧(Scott, 1996)	이미지란 거의 지식에 가깝게 되며, 대상으로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 후에야 비로서 형성되는 이미지인 것이다.
코틀러(kotler, 2000:132)	이미지를 마케팅 관점에서 한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가지는 신념, 생각, 및 인상의 집합이라고 정의한다.

이상 연구자들의 이미지 개념을 살펴보면 이미지란 사람이 인간 사물에 갖는 감상, 인지의 인상이다. 그 중에 정치적 이미지, 경제적 이미지, 서비스업적 이미지, 문화적 이미지, 생활적 이미지 등을 포함 있다.

② 관광이미지

관광행동 연구 분야에서 이미지는 학자들의 주의를 많이 끌고 있는 주제이다. 관광목적지에 대해 개개인들이 느끼는 이미지의 중요성은 관광객들이 관광목적지 선택 시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기 때문이다(Mill & Morrison, 1992; Tapachai & Waryszak, 2000; 이태희, 1997; 이충기, 2002). 지난 수십 년 동안 관광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관광목적지 선택과정을 검증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였다(Chon, 1991; Baloglu & McCleary, 1999; Pearce, 1982; Gartner, 1989; Echtner & Ritchie, 1993; Tapachai & Waryszak, 2000). 이런 중요성으로 인해 1970년대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이 관광이미지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관광이미지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요소들이 계층적으로 상관되어 전개되는 것이고, 인지적 요소는 신념의 종합과 관광지 속성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를 의미하며,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추구하는 여행 동기에 근거한 개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정서적 요소이다 (Gartner, 1993).

관광이미지 측정과 관련하여 연구자들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분명한 개념적 구분은 있다. 그것은 환경에 부여하고 있는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요소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환경 심리학적 견해이다(Baloglu & Brinberg, 1997; Baloglu & McCleary, 1999; MacKay & Fesenmaier, 1997; Russell & Pratt, 1981; 박석희·고동우·김병국, 2000).

그 동안 관광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이미지의 개념에 대한 지각적 구성요소만을 주로 다루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Walmsley & Jenkins, 1992; Echtner & Ritchie, 1993; Walmsley & Young, 1998; 김병국·박석희, 2001; 강재정·송재호·양성국, 2003) 물리적 장소에 대하여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환경이나 장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구성요소로부터 감정적 요소를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ussel & Pratt, 1980; Russel, Ward & Pratt, 1981).

정서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 심리학에서부터이다. 인지와 정서에 대한 선후관계 논쟁을 시작으로 심리학에서 정서에 대한 연구의 진전을 가져왔으며, Lazarus(1982)는 인지적 평가를 통해서 정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관광이미지 연구에서는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으며 두 차원 간에 관련성을 파악하는 접근방법도 유용하다고 본다(강재정·송재호·양성국, 2003).

Baloglu & McCleary(1999)는 Stern & Krakover (1993)의 연구를 바탕으로 관광이미지 형성모형을 개발하였다. 다만, Stern & Krakover와 달리 Baloglu & McCleary(1999)는 관광객이 대상지에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와 더불어 인적요인(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심리학적 특성 등) 및 자극요인으로서 매개요인(정보의 다양성, 형태 및 정보량 등)을 외생변수로서 모형에 투입하였다. 이 연구 흐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미지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에 최소한 인지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의 개념 구분이 가능하여 이들 요소는 서로 연속선상의 인과관계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 때 인지적 이미지는 거의 예외 없이 객관적 혹은 물리적인 관광지 속성에 대한 지각적 평가를 의미하며, 정

서적 이미지는 전체적이거나 구체적인 속성을 평가함으로써 연계 되는 정서적 반응을 뜻하고, 마지막으로 전반적 이미지는 그야말로 하나의 관광지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의 정도를 의미한다(Baloglu & McCleary, 1999; 박석희·고동우, 2002).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서적 평가가 인지적 평가보다 관광이미지 형성에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인지적 평가는 정서적 평가를 통해 관광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국·박석희(2001)는 Baloglu & McCleary (1999)의 연구를 토대로 방문 전 관광이미지 형성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관광이미지를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로 구분하여 인지적 이미지를 환경, 매력물, 경험의 질, 가치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고, 정서적 이미지를 자극, 즐거움, 우세함, 환기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연구결과 인지적 이미지가 정서적 이미지와 전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이미지는 전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경로모형을 통해 밝혔다. 그들은 Baloglu & McCleary(1999)의 연구에서와 같이 인지적 이미지에 의해 정서적 이미지가 반응하고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에 의해 전체이미지가 반응한다는 견해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Russel & Pratt(1980)는 정서적 이미지의 기본정서가 '활성화(arousing-sleepy)'와 '쾌-불쾌(pleasant-unpleasant)'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고 하였고, Baloglu & Brinberg(1997)은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여 각성-졸림, 쾌-불쾌, 흥분-우울, 이완-긴장이라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된 정서적 이미지평가척도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Baloglu & McCleary(1999)를 위시한 많은 국내외의 선행연구자들이 관광이미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주제를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이미지 측정방법과 관련된 연구는 인지적 측면의 연구(Gartner, 1989; Chon, 1991; Fakeye & Crompton, 1991; Walmsley & Jenkins, 1992; Echtner & Richie, 1993; Milman & Pizam, 1995; 조광익, 1997; 엄서호, 1997; 김충기·이준혁, 2000)와 정서적 측면의 연구(Russel, Ward & Pratt, 1981; Baloglu & Brinberg, 1997; Walmsley & Young, 1998; 이태희, 1997; 박석희·고동우·김병국, 2000; 박석희·고동우, 2002)에 중점을 두거나 인지적·정서적 측면의 연구(Dann, 1996; Mackay & Fesenmaier, 1997; Baloglu & McCleary, 1999; 박의서, 1999; 김병국·박석희, 2001; 강제정·송재호·양성국, 2003; 이정규, 2004)를 통하여 의미를 동시에 측정하기도 한다(Dann, 1996; Mackay & Fesenmaier, 1997; Baloglu & McCleary, 1999; 박의서, 1999; 조명환·최규환·여호근, 2002). 즉, 관광지 선택과정에서 이미지가 형성될 때, 이미지의 인지적요소와 정서적

요소는 구별되지만 상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Gartner, 1993). 관광이미지연구에서 정서적 평가는 사물의 인지적 평가에 의존하고, 정서적 반응은 인지적 반응의 작용으로서 형성된다는데 많은 연구자들은 동일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두 차원을 함께 측정하는 것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Gartner, 1993; Baloglu & Brinberg, 1997; Baloglu & McCleary, 1999; Dann, 1996; Mackay & Fesenmaier, 1997; 박의서, 1999).

이상 연구자들의 관광이미지 개념을 살펴보면 관광이미지는 관광객이 관광대상에 객관적인 형태외모, 내부구조 등 요인의 인지 및 관광주체간의 감상적인 인상이다.

③ 제주해녀이미지

제주해녀의 이미지 형성과 변화는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전근대적 사회에서 제주해녀들은 해산물 채취물 (주로 미역과 전복)에 대한 정치적 또는 군사적 지배자들로부터 과도한 공납과 관리들의 수탈의 희생자이기도 하였다. 특히 정치적 주권을 상실한 상황에서는 더욱 커다란 희생을 강요당하였다.

제주해녀들에 대한 이미지 형성은 일제강점기에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봉건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했던 전근대적 사회에서와는 달리 일본 식민자본주의가 침입하는 과정에서 제주잠녀도 하나의 자본과 임노동 관계 속에 편입되어 새로운 직업집단으로 변화하였다(권기숙, 1996). 이를테면, 전근대적 생산양식 체제 속에서 제주해녀는 일상생활 속에서 생존을 유지하는 노동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근대적 사회에서 해녀들은 '생존양식' 혹은 '생존전략'의 수단으로 해산물을 채취하여 힘겹게 생계를 유지해 나갔고, 다른 생선품과 교환하는 단순한 생산·교환체제하에 있었다.

제주해녀에게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 지배적 사실은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다. 제주해녀의 역척스런 삶의 과정 속에서 생산 및 재생산되어온 이미지는 대체로 근면성, 강인성, 독립성, 건강성, 자율성 등으로 특징화되었으며, 나아가 제주여성의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제주해녀의 사회적 이미지화는 압축성장의 경제개발 시대에 일반인들이 본받아야 할 상징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 혹은 경제개발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인적자원의 동원화 전략은 여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그 이면에는 여성 노동력 동원과

착취들이 은연중에 정당화시키는 의도된 형상화가 배여 있다. 특히 제주해녀를 홍보하는 대중매체 (예컨대, 대중잡지, 여행 잡지, 신문, 방송, 등), 제주해녀를 소재로 만든 소상품, 해안도로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잠녀 조각상 등이 그들에 대한 이미지를 생산 및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해녀들의 삶의 과정과는 무관하게 그들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안미정, 1998).

이상 이미지, 관광이미지 및 연구자들의 제주해녀이미지 개념을 살펴보면 제주해녀이미지는 우리들이 제주해녀에 대해 인지적, 정서적인 인상이다. 그중에 객관적 이미지는 제주해녀 일상생활, 작업 속에서 나온 인상이다. 감상적 이미지는 객관적 이미지를 통해 머릿속에 생긴 인상이다.

2) 인지적 이미지

관광지 이미지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들이 계층적으로 상관되어 전개되는 것이고, 인지적 요소는 신념(beliefs)의 총합과 관광지 속성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를 의미하며, 관광객들이 추구하는 여행동기에 근거한 관광지에서의 개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정서적 요소이다(Gartner, 1993:196).

맥켄널은 명소→표지→명소로 변형되는 관광적 상징주의 구조에서, 명소→표지로의 첫 번째 변형에서의 상징적 표지는 하나의 정신적 이미지(관념 또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였고, 두 번째 변형(표지→명소)에서의 상징적 물리적 이미지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을 위한 상징적 표지로서 소용이 되는 명소이다.(오상훈 옮김, 1994).

종합으로 보면 관광지 인지적 이미지는 사람이 관광지를 관람할 때 머릿속에 남은 객관적인 인상이다. 그 중에 감각, 지각, 기억, 사고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제주해녀 인지적 이미지의 요소는 주요 문헌에 나온 유산이미지, 역사적 이미지, 관광자원적 이미지, 활용적 이미지 등에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산이미지

등재 신청한 제주해녀문화의 주요 내용은 잠수 장비 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문화, 해녀들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잠수굿,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인

해녀노래, 모녀간, 세대 간 전승되는 무형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역할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잠수 장비 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문화

제주해녀들을 해산물 채취할 때 특별한 잠수 장비 없이 그냥 해녀학교에서 심폐소생술, 수영법과 잠수법, 해산물 채취법 등을 배운다. 바다 속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세계적으로 널리 볼 수 있다. 생계를 위해 아무런 장비 없이 잠수하는 사람은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



〈그림 7〉 자신의 숨만큼만 머물면서 바다가 주는 만큼만 가져오는 해녀²⁵⁾

② 잠수굿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살아있는 해녀문화인 잠수굿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 시민의 소리:<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57>

잠수굿은 제주도의 해안 마을에서 잠수들이 중심이 되어 잠수들의 무사안녕과 해산물의 풍요, 공동체의 연대를 위해 하는 무속 의례이다. 잠수굿은 잠녀굿·해녀굿·요왕제·요왕굿·해신제·수신제 등으로 불리고 있다. 잠수굿은 잠수라는 특정한 생업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굿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해 음력 1월~3월 사이에 열리는데, 마을마다 그 시기가 조금 다르다. 해당 어촌계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안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다.

어촌계와 잠수회의 대표들이 심방에게 굿을 의뢰하고 관련 준비를 한다. 굿 당일에는 모든 잠수들이 참여하는데, 이들은 돼지고기 등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성행위를 하지 않는 등 금기를 지키며 몸가짐을 조심한다. 월경 중이거나 상(喪)을 당한 잠수들은 참여하지 않는다.²⁶⁾

잠수굿의 절차와 진행 형태는 해당 마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삼석울림·초감제·요왕맛이·지드림·씨드림·씨점·액막이·배방선·도진으로 나눌 수 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제주 굿의 다른 제차들이 추가될 수도 있다.

잠수굿을 하는 날에는 주민이나 관련 종사자 등 굿판에 방문하는 이들을 대접한다. 굿을 마치면 잠수들이 모두 모여 한판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오랜 시간 즐기기도 한다.



〈그림8〉잠수굿²⁷⁾

26)현용준, 2002.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7)한라일보: <http://www.ihalla.com/read.php3?aid=1385564400448139268>

③ 해녀노래

1971년 8월 26일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제주도 해녀들이 바다로 물질을 나갈 때, 배를 저어가면서 부르는 민요로, 오돌또기·맷돌노래·산천초목·봉지가와 함께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요 5수에 든다.

해녀노래는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사용하는 태왁·빗창 등으로 장단을 치면서 부른다. 노래 내용은 해녀일의 고됨과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담아 표현하고 있다.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요벤드 레 에헤 끊어진들 에헤 신서란이 에헤 씨말랐더냐 에헤
2. 유리잔을 에헤 눈에다 붙이고 에헤 두렁박을 에헤 가슴에 안고 에헤
3. 우리 배는 에헤 잘도 간다 에헤 참매끼 에헤 가슴에 안고 에헤
(후렴) 이어도 사나 에헤 이어도 사나 에헤 어잇잇 에헤 이엇 사나 에헤총각차라 에헤 물에 들 에헤 양식 싸라 에헤 물에 들자 에헤 요뿔 타고 에헤 어딜 갈꼬 에헤 진도 바다 에헤 골로 간다 에헤
4. 바람일랑 에헤 밥으로 먹고 에헤 구름으로 똥을 싸 물결일랑 집안을 삼아 집안을 삼아
젊은 어머니 떼어두고 젊은 어미 떼어두고 에헤 이어도 사나 에헤 부모 동생 에헤 한강 바다
에헤 집을 삼아 집안 삼아 한강 바다 집안 삼아 에헤
5. 너른 바다 에헤 앞을 재어 에헤 한길 두길 들어가 통합 대합 비쪽비쪽 이어도 사나 미역
귀가 너홀 너홀 미역에 정신 들여 에헤 이어도 사나 에헤 미역만 에헤 하다보니 에헤 숨막히
는 줄 모르는 구나 숨 막히는 줄 모르는 구나 에헤²⁸⁾

◎ 역사적 이미지

제주 해녀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사회 계급에 속했다. 심지어는 제주도가 본토에 비해 만
민평등사상이 더 널리 퍼져 사회 계급의 차이가 적은 상황에서도 그랬다. 해녀들은 정식 교육

28) 지식백과

을 받지 못했고, 힘들고 위험한 노동에 종사할 뿐이었다.

해녀가 관심과 찬사를 받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다. 인류학적으로 볼 때 제주 해녀는 경이로운 존재다. 이들은 복잡하고 섬세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어촌계라고 하는 집단경제체제가 한 예다. 여기에 더해 기술과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와 동시에 이들을 묶어주는 애니미즘/사머니즘적 전통 종교, 정치·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 제주 방언의 꾸준한 사용, 각종 신화와 전설은 해녀 문화를 풍부하게 만든다. 이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거나 노인을 공양하는 일도 협력한다.

제주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친인척 문화인 '켄당'도 해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 켄당은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친인척을 이르는 말인데, 전통적으로 제주에는 한 마을이 모두 가족과 친인척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각 해녀 공동체도 이처럼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맺어진 경우가 많다. 공동체에 들어가는 방법은 혈연이나 결혼밖에 없으며, 그 구성원만 그 경제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 바다에서 잠수하는 곳도 공동체별로 따로 정해진다.

해녀는 어부와 함께 초기 문명의 사냥꾼과 채집자를 나타낸다. 이들이 바다에 나가지 않을 때는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은 사냥/채집과 농업의 결합 모습을 보여 주는 제주 신화와 일치한다. 제주 신화에 따르면 삼성혈에서 탐라 왕국의 세 시조, 고 씨, 부 씨, 양 씨가 나왔다. 이들은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가다가 씨앗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온 세 공주와 결혼한다. 신화에 반영된 해녀 문화다.

해녀들이 쓰는 제주 사투리는 언어인류학에서 관심이 많다. 이 언어는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고대 한국어는 물론 동남아시아나 태평양 섬 지역 언어의 특징까지 갖고 있다. 2010년 12월 유네스코는 본토에 알려지지 않은 어휘와 음성, 형태를 담은 이 사투리를 사멸 위기의 언어로 지정해 다방면에서 보존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해녀의 활동은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해녀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활동했다. 해산물을 채취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다 자란 생물만 채취한다. 호흡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잠수 시간을 줄여 수확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해녀는 오로지 스스로 다시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생물만, 개인적인 용도나 적당한 선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정도만 채집한다. 그리고 한 해녀 공동체가 속한 아주 작은 영역에서만 작업한다. 이처럼 해녀의 활동은 지속가능하다.

문헌으로는 1105년(고려 숙종 10) 탐라군(耽羅郡)의 구당사(勾當使)로 부임한 윤응균이 “해녀들의 나체(裸體) 조업을 금한다.”는 금지령을 내린 기록이 있고, 조선 인조 때도 제주목

사가 “남녀가 어울려 바다에서 조업하는 것을 금한다.”는 엄명을 내렸다.

물질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섭라(제주)에서 야명주(진주)를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삼국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남자인 포작인(鮑作人)들이 전복을 채취해 진상해 온 것으로 나와 있으며 1629년 이건의 「제주풍토기」에 해녀들이 전복을 채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해녀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이익태의 『지영록』, 위백규의 『존재전서』 등의 여러 문헌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형상의 『탐라순력도』 〈병담병주〉(1702년)에서는 지금의 용두암 부근에서 물질하고 있는 해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9〉 〈병담병주〉원본²⁹⁾

한국에 최대 어민운동이자 여성운동이며 제주 3대 항일운동 중 하나인 ‘제주 해녀 항일항쟁’(이하잡녀항쟁)은 부춘화(1908~1995)·김옥련(1907~2005)·부덕량(1910~1939)·김계석(1913~?)·고순효(본명 고차동·1915~?) 등 5인의 해녀 대표가 이끌었다.

해녀항일운동은 1932년 1월 세화리 장터에 모인 해녀 시위가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1920년 해녀조합이 형성되던 시기부터 이미 서서히 불타오르기 시작해 1930년부터 1932년까지 크고 작은 시위가 238회나 됐다. 이 시기 시위에 참가한 해녀의 수는 무려 1만7130여 명에 이른다. 대규모의 장기적인 항일투쟁이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9) 해녀박물관: <http://www.jeju.go.kr/haenyeo/haenyeo/haenyeo.htm>



〈그림10〉해녀항일운동기념탑 및 해녀5인 대표사진³⁰⁾

‘잠수’는 ‘물질하는 아주머니’라는 뜻으로 1953년 수산업법 개정 이후 행정용어로 사용, ‘해녀’나 ‘잠녀’가 계집여자가 들어있는 비어란 관점에서 존칭의 의미로 ‘잠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잠녀(潛女)라고도 하는 해녀는 주로 제주도에서 볼 수 있다. 해녀의 기원은 인류가 바다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시작한 원시산업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제주 해녀의 역사도 고고학적으로 볼 때 기원을 전후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³¹⁾



〈그림11〉 잠녀사진³²⁾

30) 제민일보: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320>

31) 제주민속촌: <https://jejufolk.com>

32) 제주민속촌: 제주이야기 <https://jejufolk.com>

◎ 제주해녀 관광자원적 이미지

① 제주해녀박물관

제주 해녀박물관은 국내 최대 규모 여성항일운동 집결지였던 구좌읍에 위치해 있다. 박물관은 제주해녀의 생애를 집대성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연구, 보존, 전시하는 기능과 동시에 해녀문화를 교육, 전승하는 역할을 한다.

해녀박물관은 1932년 제주해녀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무참히 수탈하는 일제에 맞서 여성이 주체가 되어 투쟁했던 제주해녀항일운동의 발상지에 자리 잡고 있다. 제주해녀는 세계적인 존재로 어려운 작업 환경을 딛고 끈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개척정신으로 인해 제주 여성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했으나 30~40대 해녀가 15%도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해녀문화의 보존을 위한 전문 해녀박물관이 갖는 위상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형성된 해녀들만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문화는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중요한 관광문화자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제주해녀들의 생존과 삶, 자존의 역사를 담은 해녀박물관은 제주의 상징인 “해녀”를 주제로 그들의 생활풍습, 무속신앙, 세시풍속, 해녀공동체 뿐만 아니라 제주민의 역사, 여성, 생업, 경제, 해양, 신앙, 연희 등 제주의 전통문화를 총망라하여 전시했다. 제주해녀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고 해녀 전문 박물관에 걸맞은 특색 있는 기획전시와 지속적인 해양 민속 발굴로 21세기 세계적 문화예술의 메카로 가꿔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³³⁾



·연혁

- 2000. 09. 15 제주어촌민속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03. 12. 23 제주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공사 착공
- 2005. 09. 12 제주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공사 준공
- 2005. 10. 06 제주해녀박물관으로 명칭 확정
- 2006. 06. 09 해녀박물관 개관
- 2015. 03. 16 해녀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에 따른 재개관

33)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where_main_search.jsp?cid=130857

해녀박물관은 제주만의 독특한 해녀, 어촌, 해양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제주해녀항일 운동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2003년 12월 23일 공사를 착공, 85,951m²(2만 6천평)의 부지에 총 124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4층에 전체면적 4,002m²의 규모로 지어졌다. 주요 시설로는 4개의 전시실과 영상실, 전망대, 휴게실, 야외전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6월 9일에 개관하였다. 해녀박물관 제1전시실은 '해녀의 생활'을 주제로 어촌마을의 형태와 세시풍속을 실제에 가까운 모형으로 전시해 제주의 음식문화, 영등신앙 등 해녀들의 의식주 전반을 알 수 있다. '해녀의 일터'를 주제로 한 제2전시실은 테왁망사리, 눈, 빗창 등의 작업도구, 물소중이와 고무옷을 비교·전시하고 있다. 해녀박물관의 백미는 제3전시실이다. '해녀의 생애' 주제의 전시실에서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해녀들이 전하는 첫 물질·출가물질 경험담과 작업모습 감상이 가능하다. 담담하게 들려주는 거친 바다에서 위험했던 순간과 바위를 헤집고 다니던 뭉툭한 손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h3>해녀의 생활</h3> <p>제1 전시실</p>	<h3>해녀의 일터</h3> <p>제2 전시실</p>
	
<p>제1전시실에서는 제주해녀들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해녀의 집과 세간을 통해 1960~1970년대 해녀의 살림살이를 살펴볼 수 있으며, 어촌마을의 형태와 세시풍속을 모형과 그래픽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시장에는 제주여성들의 옷, 애가구덕, 물허벅, 지세항아리 등 고단한 해녀의 삶을 대표하는 유물들과 제주의 음식문화, 영등 신앙 등 해녀들의 의·식·주 전반에 대하여 전시하고 있다.</p>	<p>제2전시실은 제주해녀들의 바다 일터와 역사, 공동체를 알 수 있다. 언 몸을 녹이고 물소중이를 갈아입는 불턱을 중심으로 테왁망사리, 눈, 빗창 등의 작업도구, 물소중이와 고무옷을 비교하여 전시하였다. 그리고 해녀의 역사, 제주해녀항일운동, 해녀공동체에 관한 각종 문서와 사회공익에 헌신한 해녀들의 사진과 영상자료를 살펴 볼 수 있다.</p>
<p>① 해녀의 집 ② 어촌마을 ③ 제주의 세시풍속 ④ 해녀의 생활도구 ⑤ 제주의 음식문화 ⑥ 해신당과 굿</p>	<p>① 불턱 ②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 ③ 해녀의 역사 ④ 해녀공동체 ⑤ 사회공익을 위한 헌신과 참여 ⑥ 대한뉴스 해녀소식</p>

<h3>해녀의 생애</h3> <p>제3 전시실</p>  <p>제3 전시실은 해녀들의 생애를 전시하였다. 첫 물질부터 상군해녀가 되기까지의 모습, 출가물질 경험담, 물질에 대한 회고 등 해녀들이 전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물질하며 틈틈이 만든 해녀들의 솜씨와 자랑스러운 해녀들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에는 해녀작업장 창문 너머 힘차게 물질하는 해녀의 모습을 볼 수 있다.</p> <p>① 바닷속으로 ② 해녀 물질이야기 ③ 해녀가 되고픈 소녀, 영재 ④ 해녀의 솜씨 ⑤ 자랑스러운 해녀의 삶 ⑥ 해녀작업장</p>	<h3>어린이해녀관</h3>  <p>어린이들이 제주해녀 관련 놀이기구를 만지고 놀면서 해녀와 제주 바다를 느낄 수 있는 즐거운 놀이터이다.</p> <p>① <제주해녀 수애기> 3D영상 ② 해녀처럼 숨참기 ③ 망사리 시소와 저울 ④ 힘차게 물위로 점프 ⑤ 불턱에서 옹기증기 ⑥ 재미있는 고망낙시 ⑦ 물고기가 한가득, 원담 ⑧ 바닷의 악당, 해양쓰레기</p>
--	--

〈그림12〉 제주해녀박물관 전시공간³⁴⁾

지하층에서는 '제주해녀의 하루'라는 주제로 해녀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삽화, 그래픽 및 스키시패널, 모형, 음향 장비 등을 갖추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전시관으로 연출하여 해녀의 하루 일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공간을 조성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소장 자료는 민속 어구 304점, 채취 어구 242점, 보관 저장 어구 125점, 낚시 어구 3378점, 선박 어구 64점, 민속자료 390점, 사진·문헌 357점 등 총 4,860점이 전시되어 있다. 오늘날 해녀박물관, 해녀학교, 체험관광프로그램과 같은 해녀 문화 보존 노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 지방정부도 조만한 해녀문화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2012년 9월 세계자연보존총회에서는 '독특한 해양 생태 지킴이 제주 해녀의 지속가능성'이란 발의안을 가결해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박물관의 제일 아래층에는 어린이해녀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해녀처럼 숨참기, 망사리 시소 등 놀이기구를 만지고 놀면서 해녀와 제주바다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방송 등에 박물관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관광안내소마다 리플릿을 배부하는 홍보를 넘어 SNS, 구글컬처럴인스티튜트 등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에 2015년 13만5천여 명, 2016년 16만여 명, 2017년 8월 기준 10만여 명이 박물관을 다녀갔

34) 제주해녀박물관 리프렛 참고

다.35)

② 제주해녀문화축제

제주도 해녀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축제로, 2002년 5월 월드컵축구대회 개막에 맞춰 시작되었다. 제주도 고유의 신화와 해녀들의 삶, 제주도 사람들의 어촌생활에 관한 각종 행사를 갖는다. 2002년에는 바람축제와 무혼굿, 세화리 해녀항쟁 거리굿, 어촌마을 신당기행, 우도 해녀마을 답사, 마라도 아기업개 처녀당 기행, 남제주군 사계리 해녀대축제 등의 행사를 가졌다.

이중 전야제인 바람축제는 영등신맛이굿이 중심을 이루고, 무혼굿은 바다에서 죽은 해녀들의 혼을 달래는 행사이다. 세화리 해녀항쟁 거리굿에서는 1930년 일본의 부당한 해산물 정책에 저항한 해녀들의 투쟁을 재현하며, 어촌마을 신당기행과 우도 해녀마을 답사, 마라도 아기업개 처녀당 기행 등은 어촌생활 문화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사계리 해녀대축제는 잠수굿과 물질대회 등 해녀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각 행사에는 칠머리당굿 보존회 무형문화재들의 공연과 제주의 옛해녀 사진전,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먹거리장터, 마당극,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³⁶⁾

'숨비소리, 바다건너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제9회 제주해녀축제가 2016년 9월 25일 제주 해녀와 도외 출향해녀, 관광객, 도민 등 연인원 4만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의 첫날인 24일에는 해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둘째 날에는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테마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특히 처음 야간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주민과 지역주민들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독창적이고 실속 있는 해양문화축제로 참가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또 물소중이를 입은 해녀 대표와 각 기관장들이 불턱 성화 퍼포먼스를 통해 2016년 11월 최종 결정되는 제주해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온 도민과 함께 기원했다.³⁷⁾

35) 강원도민일보자료: 김영희, 2017년 10월 20일.

36) 지식백과 참고

37)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6972>



〈그림13〉제주해녀축제³⁸⁾

매년 4만~5만 명이 모이는 해녀축제가 2017년 열 번째로 개최, 9월 2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26개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구좌읍 해녀박물관 야외광장과 인근 해안에서 펼쳐진 해녀축제는 첫날 구좌읍사무소에서 출발하는 거리 퍼레이드와 해녀노래보존회의 축하공연, 해녀들의 소원지를 테왁망사리에 담아 전하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특히 거리 퍼레이드는 부산·경남 등지의 출향해녀들의 참여가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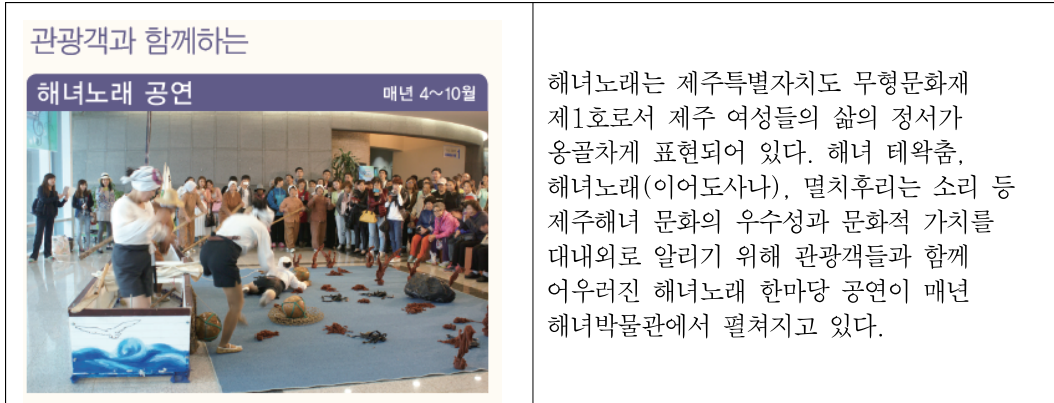
세화해변에서 열린 현직 해녀들의 물질재현과 일반인 물질체험행사는 바다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해녀들의 모습을 실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해녀박물관에서 열린 연극 공연과 해녀 생애사 토크콘서트는 해녀들의 작업모습과 나눔과 배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해녀공동체의 따스한 문화를 되새기게 하는 기회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권민선 주무관은 “제주해녀축제로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제주해녀 브랜드의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여성 중심의 제주를 대표하는 해양문화 축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³⁹⁾

③ 제주해녀공연 및 체험 이미지

38) 강원도민일보자료: 김영희 2017년 10월 20일.

39) 위와 같다

○해녀노래공연



〈그림14〉제주해녀노래공연40)

제주해녀들 사이에서는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역동적인 민요 〈해녀노래〉가 전하여지고 있는데, 그 사실에서도 해녀들의 강렬한 의지가 드러난다. 해녀 노래는 그 곡태가 다양하다. 제도의 술한 노동요 가운데서도 맷돌·방아 노래와 더불어 백미리할 해녀 노래는 그 가사 내용도 출중한 편이다. 종류도 다양하다. 해녀 노래는 역동적이며 직설적인 색채가 짙다. 의문형과 4·4조의 율격은 이런 특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일종의 어업요로서 ‘해녀(질)소리’·‘잠수(질)소리’·‘네 젓는 소리’라고도 하였다. 어업요로서 수산노동요 중 어업 채취요에 속한다. 고무옷도 없고 배도 없고 바다까지 나가려면 춥고 힘든데, 해녀노래는 그 때 부르던 노래이다. 서로 힘내서 일하자는 뜻으로 불렀다.⁴¹⁾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관광객과 함께하는 해녀노래 공연을 상설 진행하고 있다. 해녀문화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공연은 2016년 4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해녀박물관 로비 무대에서 진행된다.

제주 여성들의 삶의 정서가 표현된 해녀노래는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서 제주도 전역에서 해녀들이 불렀으나 해녀의 감소와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녀 상설 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해녀문화 홍보 및 볼거리 제공 등을 통해 독특한 해녀문화 체험 활성화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⁴²⁾

40) 강원도민일보자료: 김영희 2017년 10월 20일.

41)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제주 해녀노래”,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한반도 해양문화.

○해녀물질공연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내는 독특한 숨소리를 숨비소리라고 한다. 아무런 장비 없이 오랫동안 잠수를 해야 하는 해녀들에게 숨비소리는 생명의 소리나 마찬가지로. 물 밖에서 몸속 가득 쌓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 가쁘게 내뿜는 숨결마다 ‘휘오이~ 휘오이~’ 휘파람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해녀들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2~3분가량을 수심 10~20m 속까지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해온다.

제주도 해안 어디에서나 해녀들을 볼 수 있지만, 먼 거리에서 숨비소리를 구분해 듣기란 쉽지 않다. 해녀들이 물질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면 성산일출봉을 찾아가면 된다. 성산일출봉 절벽 아래 해안에서 매일 두 차례 ‘해녀 물질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이라고는 하지만 특별히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풍성한 것도 아니다. 해녀들이 전통 고깃배인 테우를 타고 나가면서 부르던 구전 민요를 잠깐 들려준 후 일출봉 앞바다로 물질을 나서는 게 전부지만, 제주 해녀들과의 만남 자체가 웬지 모를 설렘을 갖게 한다. 해녀 물질 공연이 곧 시작됩니다.” 공연 5분 전,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사람들이 해안으로 통하는 계단을 따라 하나 둘씩 내려가기 시작한다. 곧이어 등장하는 해녀들. 사회자가 한 사람씩 소개할 때마다 관객 사이에서 탄성과 박수가 흘러나온다. 짧게는 30년, 길게는 60여 년 동안 물질을 해오고 있다는 해녀들이 그저 대단할 따름이다. 소개가 끝나자 노와 테웍을 앞뒤로 흔들며 “이어도 사나, 어이어이~” 하며 노래를 부르는 해녀들. 노래 속에는 어렵고 힘든 물질을 계속 해온 해녀들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다.

약 5분간의 짧은 공연을 마치고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하자, 해녀들이 입수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저마다 분주해진다. 제주도 해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데 이 순간도 언젠가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지 모를 일이다. 머리부터 입수해 두 발을 허공으로 휘젓다 어느덧 물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들. 해녀들을 삼킨 바다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금세 잠잠해진다. 이제나 나올까, 저제나 나올까. 갑자기 저 멀리 한 해녀가 뭔가를 번쩍 들어 올리며 소리친다. 저건, 문어? 갑자기 박수와 탄성이 해안에 가득 울려 퍼진다. 그 소리는 제주 해녀 모두에게 바치는 찬사이다. 성산일출봉 해녀 물질 공연은 매일 오후 1시 반, 3시 두 차례씩 열린다.⁴³⁾

42) 헤드라인제주: 2016. 04. 11



〈그림15〉 해녀물질공연⁴⁴⁾

○해녀 물질 체험



〈그림16〉제주해녀물질 체험⁴⁵⁾

④ 제주 해녀촌/민박

제주해녀가 관광산업에 의해 상품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제주도 해안도로를 따라 군데군데 위치하고 있는 〈해녀촌〉에서 볼 수 있다. 해녀촌은 대부분 그 마을의 제주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곳이며, 이곳을 이용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관광객들이다.

해녀촌에는 일반적으로 해녀상이 세워져 있다 해녀상은 이곳이 제주해녀들이 작 점 운영하는 음식점임을 상징한다. 해녀촌 근처에는 해녀탈의장이 있어 물질작업에 서 갓 채취한 해산물을 해녀촌에서 바로 제공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이곳의 해녀상 보면서 ‘제주해녀’를 만나게 된다. 해녀촌의 석상은 다음사진에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실물보다 크게 제작되어 있다.

43)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travel/content/C03020100/view_1706158.jsp

44) 위와 같다

45) 위와 같다



〈그림17〉 해녀석상⁴⁶⁾

제주도 해녀마을에 해녀 분이 직접 운영하는 독채 민박, 요즘은 물질을 하고 있어서 직접 잡아온 싱싱한 자연산 수산물도 직접 사서 먹을 수 있다.



〈그림18〉 해녀 독채 민박⁴⁷⁾

⑤ 제주해녀 음식 이미지(해녀밥상)

‘해녀밥상’은 무엇일까. 제주학 연구센터는 ‘제주해녀음식(haenyeo Local Food)’에 대해 해녀들이 채취한 소라나 전복, 우뚝가사리, 툫 등의 패류나 해조류를 이용해 독특한 조리법으로 만들어 대대로 전해져 온 음식들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해녀밥상’은 무엇이 다른가. 해녀들의 음식, 해녀들이 채취했던 해산물을 활용한 음식, 해녀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음식 모두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녀밥상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기에 소중하다. 해녀밥상엔 자연이 숨 쉰다. 돌밭과 바다 밑에서 제철에 따낸 갖은 재료를 소박하게 요리해 차려낸다. 해녀밥상을 알면 해녀들의 삶과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수회에 걸쳐 담아내고자 한다.

46) <https://goo.gl/images/qNT7aV>

47) 전부, 2013.11.27. 제주도 독채민박 해녀가 운영하는 해녀와 초가집프로필

제주에는 지금 '해녀' 키워드로 들썩이고 있다. 해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됐다. 제주해녀는 2016년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 세계인의 보물로 재탄생했다. 해녀의 권익보호와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해 제주해녀협회가 발족됐다.

제주해녀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제시되고 있다. 해녀의 전통적 어업방식과 불턱·해신당·해녀의 작업도구 및 물옷, 해녀공동체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녀의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 '밥상'에 다가서야 할 때이다. 음식을 문화로 이해해야 할 때이다. 제주해녀들이 오랜 세월 물질을 할 수 있도록 해준 해녀들의 음식은 무엇이였을까. 제주의 밥상은 낭푼이라고 부르는 크고 둥근 낫그릇이나 나무로 만든 남박에 밥을 담아 식구가 같이 먹었다. 이런 풍경은 쉼새없이 물질과 농사일로 바빠 살아야 했던 제주해녀들의 바쁜 생활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4년 제주문화관광포럼에서 '제주해녀밥상'을 소개하고 문화콘텐츠로서의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생생한 제주 해녀의 삶이 음식을 통해 눈앞에 펼쳐졌다.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된 '제주 해녀'가 살아있는 문화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시도였다. 제주도의회 제주문화관광포럼과 제주대학교스토리텔링센터 등은 '제주해녀의 삶과 그 밥상이야기'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그 이후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됐고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지금도 '해녀밥상'에 대한 조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지순 향토요리명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녀밥상'을 재현하는데 나선다. 그는 '해녀밥상'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오랜 시간 알려온 사람이다. 그 이유는 밭일에 물질에 집안일까지 하면서도 힘겨운 생활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온 해녀들의 음식엔 그들의 삶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한라일보에는 201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창의주도형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제주의 맛을 지키는 '당찬 맛집' 기록화 사업과 '당찬 제주인의 자연밥상' 영상물 제작사업을 진행했다. 제주의 대표 향토음식전문가와 현직 한라일보 아줌마 기자가 음식소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영상은 네이버 채널을 통해 제작된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신문사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제주음식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올해 기획취재를 통해 제주의 음식 중에서도 '해녀들의 밥상'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기획취재에 도전한다. 일본의 해녀인 아마는 아마들의 음식을 가지고 민박과 결합한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해녀의 음식은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웰빙, 건강, 슬로푸드와 맞닿아 있다. 바다에서 잡아 올린 신선한 재료들, 그리고 해녀들의 정성으로 만들어낸 음

식들은 제주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관광체험 문화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녀들의 주식인 밥, 죽, 국, 부식류, 젓갈류 등이 앞으로 펼쳐진다. 제주도과 일본을 넘나드는 해녀들의 음식이야기도 담겨진다.

불턱은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던 일터이자 담소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푸는 쉼터였다. 불턱은 바다와 가까운 해안가에 돌담을 빙 둘러쌓아 놓은 장소이다. 불턱에서 함께 추위를 이겨내며 나눠먹던 따뜻한 음식들, 그녀들의 오랜 삶의 지혜와 정을 나누는 음식, 해녀의 밥상은 나눔의 밥상이다.

바다는 해녀들에게 소중한 해산물을 제공하지만 자칫하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다. 해녀들은 신과 함께 기쁜 일을 나누고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받았다. 해녀들이 신들과 대화를 할 때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음식이다. 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소박한 음식들,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주는 음식, 해녀의 밥상은 영혼의 밥상이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이뤄졌지만 사라져가는 해녀문화를 되살려내고 이어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제 해녀의 문화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섬을 찾는 이들은 여행을 할 때 중요한 요소로 먹을거리를 찾는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여행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을 원한다. 특별한 음식은 '특별한 이야기와 삶이 담겨 있는 음식'이다.

자연의 맛을 살린 제주 전통음식엔 제주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해녀문화유산 중 '해녀음식문화'는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다. 어렵게 잡아온 해산물이지만 나라에 진상하고, 가족을 먼저 챙기고, 내다 팔면 정작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초라했다. 그래도 해녀들은 가족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 어려운 일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렇게 제주의 해녀들은 살아왔다.⁴⁸⁾

제주도에서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밥을 사람 수대로 뜨지 않고 큰 그릇(낭푼)에 담아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다. 이는 농사일과 물질을 함께 하는 제주 여인들의 바쁜 일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풍속이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부 음식문화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 특히 해녀들이 잡아온 해산물을 이용한 독자적인 음식문화를 형성했다. 대표적인 것은 소라, 전복, 성게, 해조류 등의 재료로 만든 음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2015년 12월 16일 '제주해녀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되었다. 해녀문화 중 '해녀음식문화'는 제주해녀들의 삶을 잘 반영하고 있고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분야라 할

48) 한라일보: 이현숙 기자 2017년 9월 26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녀음식(Haenyeo Food)은 해녀들이 채취한 소라나 전복, 우뚝가사리, 툯 등의 패류나 해조류를 이용하여 독특한 조리법으로 만들어 대대로 전해져 온 음식들이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어촌계가 운영하는 식당인 '해녀의 집'은 어촌계에 속한 해녀들이 생산해 낸 해산물을 판매하거나 공동으로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제주해녀의 경제적 수익 향상과 해녀문화 보전을 위한 중요한 장소다.

제주학 연구센터 연구자료를 통해서 2017년 2월 13일~10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의 어촌계가 운영하는 식당인 '해녀의 집'과 해녀들이 채취한 소라 등을 요리하여 개인이 운영한 식당수량은 18개 있고, 주요한 음식 메뉴가 50여종이 있다. 그중에 해녀의집 주요는 구좌읍 세화리 '해녀잠수촌' 식당, 안덕면 대평리 '해녀올레', 성산읍 시흥리 '시흥 해녀의 집', 성산읍 신양리 '섬지 해녀의 집', 우도 해녀음식 식당 '빨소라 몽땅', 성산읍 성산리 '해녀의 집', 한림읍 비양도 '호들이 식당', 애월읍 구엄리 '해녀의 집', 표선면 표선리 '해녀의 집', 구좌읍 김녕리 해녀마을 '만제영어조합법인', 서귀포시 법환동 '잠녀숨비소리', 서귀포시 강정동 '해녀의 집', 마라도 '철가방을 든 해녀', 서귀포시 중문동 '해녀의 집', 한림읍 한수리 어촌계 해녀음식, 성산읍 오조리 '해녀의 집', 안덕면 사계리 '해녀의 집', 구좌읍 동복리 '해녀의 집' 등 있다.

구좌읍 세화리 '해녀잠수촌' 식당 및 구좌읍 김녕리 해녀마을 '만제영어조합법인'식당의 사례는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례1: 구좌읍 세화리 '해녀잠수촌' 식당⁴⁹⁾

〈그림19〉 세화해녀잠수촌 식당⁵⁰⁾



49) 제주학연구센터, 2017, “제주해녀음식”: 11.

50) 위와 같다

구좌읍 세화리 ‘해녀잠수촌’ 식당은 해녀박물관 인근 번에 위치해 있어서 그동안 해녀음식을 전수하거나 대내외로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



특히 보말성게 미역국은 다른 식당에서 맛볼 수 없는 담백함과 진한 국물맛이 일품이다. 보말과 미역에서 나온 깊은 바다 맛을 지닌 국물에 메밀가루를 풀고 여기에 다시 성계를 넣어 만드는 이 국은 해녀음식 중에서 대표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세화리 ‘해녀잠수촌’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고영순 어촌계장의 ‘물회’등의 음식 맛은 도내에 잘 알려져 있다. 주인이 만든 양념 간에서 얻어지는 음식의 깊은 맛에 비하면, 잠수촌 식당은 홍보가 덜 되었는지 여름 한철 밖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한다.

해녀들이 탄 패류나 해조류를 이용한 음식을 외부 관광객이나 젊은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해녀축제나 세화리 ‘벨롱장’에서 음식 판매와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해녀 음식 중에서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 꼬지에 썬 음식인 ‘적’ 류는 소라적, 문어적, 군소적이 있는데 고영순 어촌계장이 만든 이 음식은 모양이나 맛이 일품이다.

〈표8〉 세화해녀잠수촌 식당음식 및 요리방법⁵¹⁾

음식	요리방법
<p>소라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라를 삶은 후 속을 내어 머리 부분만을 떼어낸다. ·큰 것은 반으로 자르고 작은 것은 통째로 간장, 깨소금 등을 넣어 양념으로 버무린다. ·꼬지에 일곱 개 정도를 꿰어서 식용유를 후라이팬에 두르고 지지낸다.
<p>문어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어를 삶기 위해서 물과 식초 또는 무를 넣고서 끓인다. ·물이 끓으면 문어를 통째로 넣고 삶는다. ·삶아진 문어를 냉수에서 행군 후 물기를 뺀다. ·7센터 정도로 자르고 간장, 깨소금, 설탕 등의 양념으로 버무린다. ·꼬지에 꿰어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후 지지 내어 제사음식으로 사용한다.
<p>군소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소는 제주어로는 ‘물토세기’라고 하여 과거에는 일부 지역 사람들만이 요리해 먹었을 뿐 먹는 것을 꺼렸다. ·주로 삶아서 숙회로 초장에 찍어 먹는 경우가 많았다. 양념 후 꼬지에 꿰어서 군소적을 만들어 제사음식으로 사영하는 경우도

51) 제주학연구센터, 2017, “제주해녀음식”: 12~13.

	<p>많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군소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 물을 넣지 않고 솥에 넣어서 쉰 불로 끓이면 물이 쭉 빠진다. ·거의 익으면 물을 빼고 솥뚜껑을 닫아서 뜸을 들여야 육질이 부드러워진다.
<p>소라구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라를 소금 위에 올려서 밑으로 열을 가하면 익는다. ·어느 정도 익으면 돌려가면서 굽는다.
<p>보말미역 성게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말 고통의 속을 내고 창자의 불순물을 제거 한 후 육수를 낸다. ·육수가 끓으면 성게를 넣고 다시 끓인다. ·미역을 넣고 끓이다가 메밀가루를 묽게 물에 풀어서 휘저은 후 간한다.

사례2: 구좌읍 김녕리 해녀마을 '만제영어조합법인'식당⁵²⁾



〈그림20〉 김녕리 해녀마을 '만제영어조합법인'식당⁵³⁾



52) 제주학연구센터, 2017, “제주해녀음식”: 29.

53) 위와 같다

김녕리 해녀마을 만제 영어조합법인(구좌읍 김녕리 135)은 김녕어촌계에서 임대하여 수산 위판장에 판매장을 내고 있다. 제주해녀와 어부들이 직접 물질을 해서 잡아 올린 해산물을 가공해서 만든 것이다. 법인 대표 김수정 사장은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 가공식품에 관심을 가진 지 17년이 되었다고 한다.

근간에는 전국 명품 특산물로 선정되어 킨텍스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아주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 소라와 문어, 톳을 가공하여 통조림으로 만든 것으로 ‘소라장’, ‘돌문어장’, ‘톳장’이 있고, 밥으로는 ‘톳밥’, ‘뿔소라밥’, ‘소라게우젓’, ‘성게알’ 등을 판매하고 있다.

〈표9〉 김녕리 해녀마을 ‘만제영어조합법인’식당 음식 및 요리방법⁵⁴⁾

음식	요리방법
<p>소라장</p> 	<p>• 제주 해녀가 잡아 올린 뿔소라는 비타민 A와 타우린, 아르기닌, 라이신, 칼슘, 인, 철분, 무기질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우리몸의 뼈와 눈건강, 빈혈, 해독 작용에 좋은 식품이다. 소라장은 소라를 깨끗이 손질하여 천연약재와 야채로 뽑은 육수, 식초, 간장, 설탕, 새우엑기스 등을 혼합하여 만든다. 냉동보관하고 소라를 잘게 썰어서 먹는다.</p>
<p>톳장</p> 	<p>• 바다의 불로초라고 하는 자연산 톳은 칼슘, 철분,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저칼로리 음식이다. 특히 다이어트나 동맥경화, 변비에 좋은 음식이다. 이러한 자연산 톳을 잘 삶아서 간을맞추고 특히 콩을 넣어서 골고루 영양소가 들어가도록 했다.</p>

○해녀밥상 유사사례: 일본해녀 ‘아마’들의 밥상

본 미에현 도바시는 일본에서 아가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505명이 도바시에서 조업 중이다. ‘아마(海女)’는 도바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임과 동시에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직 아가가 직접 요리해주는 제철 해산물을 먹기 위해 도바시를 방

54) 제주학연구센터, 2017, “제주해녀음식”: 29.

문하는 관광객도 적지 않다. 도바시는 지역의 핵심관광자원인 아미를 위해 아미환경 개선사업, 노후화 시설 개·보수, 조업도구 구입 등을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곳에서는 해녀오두막에서 불턱체험을 할 수 있다. '아미고야(海女小屋)'는 아미들이 물질할 때 몸을 데우기 위해 불을 쬐고 휴식하는 곳으로 이곳을 관광상품화한 것이다.

아미들은 오전 물질 후 불턱에서 소라, 말린 각재기(전갱이), 성게, 조개, 떡 등을 구워 한 상 푸짐하게 차려내는데 가격은 1인당 3500엔(약 3만5000원) 정도다. 불턱 체험을 갖 시작한 2007년만 해도 일 년간 고작 1854명의 관광객이 해녀오두막을 찾았지만 점점 입소문이 퍼지며 지난해에는 무려 1만5919명이 방문했다. 이중 1112명은 외국인 관광객이다.

도바시 미야모토 마수히토 수산계장은 "현재 도바시에는 3곳의 불턱 체험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성업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미가 직접 제철 해산물을 요리해준다는 점 외에도 아미전통복장을 직접 입어보는 등 아미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다는 점도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해녀오두막에서는 머릿수건과 소매 등에 별 모양(세만)과 격자모양(도만)의 표시가 수놓인 머릿수건을 포함한 아미복장을 체험해볼 수 있다. 별과 격자 모양을 수놓는 이유는 바다요괴 '도모카즈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로부터 이어져오는 아미의 독특한 풍습이다.

취재팀도 직접 체험에 나섰다.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한 다음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해 알려줬다.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서 구워주는 해산물의 신선함 때문에 멀리서 왔든 이들도 제법 보였다.

사카이 부부(효고현 히메지시)는 "불턱에서 맛본 해산물 맛을 잊지 못해 다시금 오사츠 마을을 방문했다"며 "해산물 특유의 비린내 때문에 해산물을 자주 먹지 않는데 불턱에서 금방 구워진 해산물은 비린내가 없어 유난히 맛있었다"고 말했다.

해산물뿐만 아니라 채소와 같은 반찬 재료도 직접 지역의 논·밭에서 채취한다는 것이다. 로컬푸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다. 모든 식재료를 제철에 수확해 그 계절에 섭취하는 게 가장 건강한 밥상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미코씨는 "시대가 변하며 기준에 단순했던 조리법이 요즘에는 손님 기호에 맞춰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식재료에 대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밥상은 기본 상차림부터 VIP 상차림까지 아주 다양하다. VIP 상차림의 경우 1인당 숙박비를 포함해 한 끼에 15000엔(약 15만원)인데 생선·랍스터회, 조개·대하구이, 영양

오곡밥, 생선구이, 조개장 등 다양한 코스요리로 준비된다. 기본 상차림의 경우 각재기 구이, 툇 무침, 미소국(된장국) 등이 소박하고 정갈하게 차려진다.

전복과 홍합은 손님밥상에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밥상에도 자주 올라가는 식재료다. 스미코씨는 빨간 성게도 가족이 즐겨먹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불턱에서 구워먹으면 장어보다 더 맛있고 영양가도 있다"며 "건강이 허락한다면 100세까지라도 물질을 하고 싶어 건강관리를 위해 빨간 성게를 즐겨 먹는다."며 웃어 보였다. 제주의 해녀들의 밥상이 그렇듯 일본 아마들의 밥상에도 화려함은 없었다. 건강함이 가장 큰 키워드였다.



〈그림21〉 일본해녀 '아마'들의 밥상55)

⑥ 제주해녀 토산품(기념품) 이미지

제주해녀가 관광객들에게 상품화되어 많이 판매되는 곳은 관광토산품점이다. 제주 해녀를 실제로 바닷가에서 만날 수 있는 관광객은 드물 것이다. 관광 토산품 점에서 관광객들은 가장 손쉽게 '제주해녀'를 접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객들은 제주해녀를 소재로 한 토산품을 통해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제주해녀를 소재로 한 토산품들은 제주해녀의 상품화 정도를 말해주고 있다.

제주해녀를 소재로 한 관광토산품들은 제주해녀를 어떤 이미지로 형상화하였을까. 토산품 점에는 목상과 석상 좌상과 입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든 해녀 상을 대량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주해녀를 소재로 하여 만든 열쇠고리, 펜통, 해녀쟁반 등의 관광기념품들이 있다.

지금 제주도에서 주요한 해녀특산품매장은 해녀특산품매장, 중소기업지원센터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제주 김녕 해녀정보화마을 등 3개 있다. 다른 기념품매장에도 해녀이미지 기념품을 판매하고, 많은 해녀 기념품 브랜드도 형성 되었다. 다음에 몇 사례로 제시하겠다.

55)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10571400579531340>

사례1

해녀이미지로 형성된 기념품브랜드도 많이 나타난다. 브랜드 이름은 '굿즈'이다. 상품, 물품을 뜻하는 영어 단어 '굿즈(goods)'는 국내에서 연예인이나 브랜드에서 출시되는 일명 MD 상품을 뜻한다. 제주에서는 대표 아이콘 '해녀'를 주인공으로 한 새로운 굿즈 상품이 많이 탄생되고 있다. 다양한 작품에 쓰인 해녀 캐릭터는 선물, 소장품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예쁘고 아름다운 상품이 많다. 해녀를 아름답게 기억하는 방법. 해녀 goods를 모아봤다.⁵⁶⁾

늘 마음이 두근거리는 일을 하고자 두근공방이라 이름 짓고, 제주에서의 삶과 해녀를 모티브로 다양한 제품을 제작한다. 엽서는 직접 놓은 자수를 인쇄했다. 바다 속을 유영하는 해녀의 모습을 담은 자석은 빛을 받으면 영롱하게 나타나는 특유의 색이 곱다. 해녀가 물질하는 모습이 담긴 스노글로브를 흔들면 바닷속에 눈이 내리는 듯 신비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해녀 모빌은 가벼운 모빌 형태라 공중에 매달아두면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랑거리며 흔들리는데 이는 마치 해녀가 바다 속을 물질하는 듯 한 착각을 일으킨다. 종이 모빌은 바다, 해녀, 산호와 실로 구성된 반제품으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제주의 깊숙한 속살을 이야기하는 콘텐츠그룹 제주상회의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브랜드 '스웬제주'에서 나온 해녀 노트. '수웬'은 해녀들의 물질을 뜻하는 제주어 '숨비'와 같은 의미로, 숨을 죽이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뜻한다. 스웬제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제품인 이 일러스트 노트는 제주를 그리는 화가 신유림의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로 표지를 장식했다.

〈그림22〉해녀기념품이미지⁵⁷⁾

해녀 엽서	해녀자석
	
해녀 스노글로브	디자인 에이비의 마스크링 테이프

56) 기념품으로 안성맞춤 - 제주 해녀를 담은 굿즈 인터넷 참고.

57) 위와 같다



사례2

제주 합덕해수욕장 인근에 가면 기프트카를 이용해서 예쁜 인형가게를 하는 김하영 아줌마를 만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기프트카 차량 한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모델은 참 다양하다.

김하영씨는 지난여름 까지만 하더라도 멜꾸송과 달인형을 주력으로 판매했었다. 최근엔 새로운 인형을 개발했다. 다름 아닌 제주해녀를 형상화한 제주해녀인형이다.

수많은 해녀인형들을 만나다. 저마다 인상이 모두 제각각이다. 김하영씨가 직접 핸드메이드로 한땀 한땀 만들어낸 인형이기 때문이다.

월정리해변의 멜꾸송, 멸치인형과 월정의 달을 표현한 달인형에 이어서 새롭게 개발한 인형이다. 제주 해녀는 제주의 상징이다. 제주어로는 비바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주해녀의 이름도 '비바걸'로 정했다. 큼지막한 멜꾸송은 연애하는 커플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물론 100%주문제작해서 판매한다고 한다. 달인형에 이어서 새로 개발한 비바걸의 인기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라고 하다.⁵⁸⁾

〈그림23〉 해녀인형 이미지59)



⑦ 해녀벽화 이미지

이상 해녀이미지 밖에 해녀벽화이미지도 많다. 그 중에 올레 20코스 시작점에서부터 김녕 성세기 해변까지 총 3km에 걸쳐 조성이 되어있는 '김녕 금속공예 벽화마을'이 있다. 김녕 금속공예 벽화마을은 제주에 정착하여 '다시 방 프로젝트'라는 카페 겸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금속 공예 작가 분들의 손길로 만들어진 곳이다. '고장난 길'은 제주도 방언으로 '꽃(=고장)이 피어난 길'이라는 뜻이다. 언뜻 보면 거칠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금속이 제주해녀의 삶과 애환을 담아 따뜻한 작품으로 피어났다. 이 밖에 제주 동문시장과 새화 해변에도 해녀벽화를 많이 나타나다.⁶⁰⁾

58) 김상훈 2015: 제주특산품 해녀인형 '비바길' 과 딱새인형 [김하영 아줌마].

59) 위와 같다

60) http://jejutravellab.com/tour/tour_sub.asp?search_idx=1487

〈그림24〉 제주해녀 벽화⁶¹⁾



◎제주해녀 활용적 이미지

① 해녀 이미지 브랜드화

비영리법인 제주해녀문화보존회를 모체로 창립한 숨비, 이제 한국 국내에서 유일한 수중공연 전문 제작사로 성장하였다. 10여 년간 연 평균 6회 이상의 창작 공연을 만들어온 저력을 가진 자체 제작팀은 시나리오, 연출, 영상제작, 음악제작, 외국인 연기자 수급 등을 직접 소화하며, 각종 상설공연, 콘서트, 이벤트, 영화 및 영상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남들보다 빠르고 안정되게 만들어 낼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숨비 주식회사는 해녀전통문화와 현대기술결합으로 문화콘텐츠 제작회사이다. 다음에 숨비 대표님과 인터뷰를 통해 해녀의 역사, 문화,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라져 가는 ‘해녀’ 문화를 보존하고자 노력에 노력을 더하신다는 점을 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들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10〉 숨비 대표님과 인터뷰⁶²⁾

<p>Q. 대표님, 안녕하세요. ‘숨비’에 대하여 소개 부탁드립니다.</p> <p>A.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숨비’의 대표이사 이한영입니다. ‘숨비’에 앞서 저는 사라져가는 해녀들을 문화로 보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제주해녀문화보존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에 보존을 뛰어넘어 해녀 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에 ‘해녀’가 가치가 있는 문화콘텐츠가 될</p>

61) 문화창조융합센터, 2016, <https://m.blog.naver.com/celfriends/220676917802>

62) 위와 같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숨비’를 설립하고, 해녀를 통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해녀들의 삶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공연을 만들게 되었고, 이외에도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언제부터 ‘해녀’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요?

A. 저는 원래 스킨스쿠버 강사이자 수영선수였습니다. 도시의 삶에 지치기도 했고, 물질을 잘 하는 ‘해남(海男)’이 되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킨스쿠버 강사였기 때문인지, 물질에 대해 특별히 더 배울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해녀들의 ‘공동체 의식’과 그들의 ‘문화’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이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느끼면서 ‘해녀’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Q. 해녀가 사라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된 노동에 비해 얻는 수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녀 분들이 하는 모든 문화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야만 해녀라는 문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Q. 제주해녀들의 가치를 높일 문화콘텐츠 개발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A. 현재까지는 해녀에 관련된 캐릭터 상품, 직접 채취한 식품, 해녀문화 관광 상품, 공연 콘텐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얼마 전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해녀문화체험 상품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녀문화체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 해녀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줄 전문가와 함께 해녀공연 관람, 해녀 분들이 직접 채취한 해산물로 식사를 진행하고요. 이후에 해녀들의 물질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전체 일정을 진행할 외국인 관광객 프로그램들과 MICE 산업과 연계시킨 축약된 형태로 총 2개의 해녀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前 조 클라크 총리 등 VIP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우리나라의 해녀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Q. 실제 해녀를 공연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것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물질을 하시던 해녀 분들을 공연에 출연시키기 쉽지 않았을 텐데, 해녀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네, 처음에는 해녀 분들이 굉장히 쑥스러워했습니다. 해녀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트라우마 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해녀 분들이 검은색 고무로 된 옷을 입고 물질을 했지만, 과거에는 '소중기'라는 무명으로 만들어진 얇은 옷을 입고 물질을 했습니다. 옷이 얇아 물질을 하게 되면 비치는 문제 때문에 남들이 물질을 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를 '트라우마'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공연 때는 검은색 잠수복을 입고하지만, 그래도 부끄러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공연이 계속되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해녀 분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공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② 제주해녀 잠수복 문화 콘텐츠 활용 사례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인 저스틴 손튼과 테아 브레가지가 최근 런던 패션위크 2018F/W에서 제주해녀를 모티브로 한 의상과 패션소품을 발표해 주목받은 사실이 패션지 등을 통해 알려졌다.

프린(Preen)이란 브랜드로 알려진 이들 부부는 해녀의 잠수복은 물론이고 테왁과 망사리, 해녀들이 수확한 해산물, 해녀정신을 오브제로 활용하는 등 '생태 페미니즘'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이번 해녀 컬렉션을 2017년 3~5월 영국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린 '해녀: 바다의 여인(Haenyeo: Women of the Sea)'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전시에는 김형선 사진작가와 프랑스 사운드 아티스트인 미카엘 카리키스 작가, 제주출신 고희영 감독이 참가했다.

김 작가는 5년여에 걸쳐 물질 작업 직후의 제주 해녀를 촬영한 작품을, 미카엘 작가는 제주 4.3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 가족과 지역을 지켜온 특유의 공동체를 담은 영상을 소개했다.

고희영 감독 역시 7년여 취재기간을 들여 우도 해녀의 삶을 담은 '물숨'(2016)으로 힘을 보탰다.

디자이너들은 현장에서 받은 느낌을 작품에 옮기기 위해 ‘해녀’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SNS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제주에 인상적인 문화경제가 존재한다’ ‘적어도 17세기부터 일과 가사, 양육을 병행한 여성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 ‘고무옷을 입고 작업하는 것은 레이스 블라우스 같은 여성복을 입은 것보다 매력적’이라며 해녀를 성평 등의 상징이자 생태 페니미즘의 상징으로 꼽았다. 특히 이들 브랜드의 패션계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제주해녀문화 홍보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런던 패션위크에서는 잠수복 형태의 타이트한 모자티와 테왁·망사리 모티브 손가방, 해초 느낌을 담은 신발 등이 호응을 받았다.⁶³⁾



〈그림25〉 2018F/W 잠수복·테왁 등 모티브 컬렉션⁶⁴⁾

3) 정서적 이미지

환경심리학에 의하면, 환경과 장소는 인지적, 정서적 이미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Baloglu & Brinberg, 1997).

O'Neill과 Jasper(1992)는 정서적 모델은 장소에 대한 개개인의 감정적인(emotional) 응답을 포함하고, 환경 외관의 지식표출을 나타내는 것을 인지적 모델이라고 제시하면서 소비자 공간행동 모델에서 인지적 모델과 정서적 모델을 구별하였다.

또한 Russel 등(1981)도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를 구별하였고, 어떤 속상이 정서적 반응과 일치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이미지(장소 속성)와 정서적 이미지 사이의 관련 반응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미지 구성체계에는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광지 속성에 대한 신념 또는 지식을 인지적인 요소라고 하며 관광지 속성에 대한 느낌을 정서적인 요소

63) 제민일보, 2018.2.26: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601>

64) 위와 같다

라고 한다(Baloglu & McCleary, 1999a).

이상 종합으로 보면 제주해녀 정서적 이미지는 주요 제주해녀의 객관적인 인지적 이미지를 통해 머릿속에 생긴 인상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제주해녀는 근면하고 강인한 제주여인의 전형(典型)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반농반어의 성격이 강한 제주도 해안마을에서 제주해녀는 물때에 맞추어 물질을 하며, 다른 여성들처럼 밭 일과 집안일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계절과 농번·농한기의 구분 없이 제주도의 다른 여성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거친 파도와 깊은 바다 속에서 특별한 장비도 없이 각종 해산물을 채취하며, 특히 입덧과 출산 전후에도 물질을 하는 강인함은 높이 평가되어 왔다.⁶⁵⁾

◎ 유산이미지의 감상

사례1

1960, 1970년대의 제주해녀의 부지런한 이미지는 1980, 1990년대에도 나타나고 있다. 용마을의 해녀들은 경제적 가장으로서 책임이 크고,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매우 열심히 일한다. 책임감이 강할 뿐 아니라, 부지런하고 능률적인 인간이 용마을의 존경받는 여성상이다. 좋은 며느리감이란 물질 잘하고 밭일 잘하는 이가 꼽힌다. 더구나 이들은 일하는 것 자체를 즐기며, 일을 통해 얻는 대가를 자랑스럽게 추구하다.⁶⁶⁾

사례2

이 고장 [제주도]의 해녀는 부지런하고 기술과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다른 지방의 해녀보다 수도 많고 특출한 솜씨를 보이는 이유가 혹시 혈통에 관계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건 결코 아니다. 척박한 땅에서 억척스런 생활력을 길러온 제주의 여자들은 어려서부터 물질을 익혔고 부지런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랜 노력의 결과로 그 솜씨가 뛰어나게 마련이었던 것이다.⁶⁷⁾

65) 안미진, 1997,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6) 조혜정, 1982,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한국인과 한국문화, 한상복 편, 심설당:159

사례3

칠흙같이 어두운 겨울바다와 사투 끝에 무사히 생환한 高玉껏씨(54). 高씨 는 지난 11월 23일 오후 4시께 우도면 조일리 영일동 해안 2km 지점에서 소리를 채취하다 실종, 이날 장 장 12시간의 사투 끝에 스스로 헤엄쳐 살아났다. 生과 死의 갈림길을 두고 눈보라 속 難바다 한가운데 던져졌던 高씨는 살아 돌아오자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미안한 듯 동네를 돌아 다니며 인 사 다닐 정도로 泰然自若해 제주海女の 표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⁶⁷⁾

사례4: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인들

여성학자들은 해녀를 ‘에코 페미니즘’의 사례로 인용한다. 몸과 마음이 강하고, 독립적이며, 실용적이고, 근면하고, 똑심 있는 특징 때문이다. 해녀들도 스스로 자신의 직업을 독립성이 강한 일로 묘사한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고, 언제 든 돈을 벌어야 하면 바다에 뛰어들어 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스스로 힘을 느낀다고 이야기 한다. 해녀의 전설 속에서 바다는 저승을 뜻한다. 해녀 속담 중에는 “저승 돈 벌어 와서 이승 자식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페르세포네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인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의 왕인 하데스에게 잡혀가자 지상에는 기근이 퍼진다. 이에 제우스가 개입해 페르세포네가 1년 중 3분의 2는 어머니 곁에서 보낼 수 있게 해 지상의 인간들이 농업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해녀들이 저승으로 간다고 말하는 것이 체념을 뜻하지는 않는다.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지옥으로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바다를 육지에 있는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자궁과 같은 곳으로 여긴다.

잠수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의 정신은 자유롭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 그래서 해녀들은 종종 잠수를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묘사한다. 오히려 육지로 돌아갈 때 진짜 집 같은 바다를 떠나 책임감으로 가득한, 땅에 묶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약간

67) 월간관광제주사, 1985, “참으로 끈질긴 해녀들의 힘: 제주해녀의 역사와 현황,”:80~82

68) 한국기자협회제주도지부 1993, “제주저널”, 장간호.

체념을 느낀다. 잠수가 몸에는 해로워도 정신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듯하다. 충만감, 동기, 자연, 동료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해녀 공동체가 지닌 사머니즘적인 믿음도 이런 고유한 심리 상태를 만들어준다. 제주 해녀는 독립적인 성향과 함께 집단적인 성격도 띤다.⁶⁹⁾

◎ 자원적 이미지의 감상

해녀상으로 재현된 제주해녀의 이미지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해녀상을 보면, 젊은 제주해녀를 연상하게 된다. 또한 해녀상에 재현된 제주해녀의 미소를 보면, 물질작업을 '낭만적인 직업'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 활용적 이미지의 감상

사례 1 독립성, 자신감,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



〈그림26〉 『엄마는 해녀입니다』 해녀이미지⁷⁰⁾

2017년 7월에 책은 [엄마는 해녀입니다]를 출간했다. 출간된 『엄마는 해녀입니다』는 영화감독 고희영이 제주 해녀 3대의 삶을 풀어낸 동화. 영화 <물숨>으로 인연을 맺은 고희영

69) 라이브러리: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1211N038>

70) 채널예스: <http://ch.yes24.com/Article/View/33633>

감독과 에바 알머슨은 책 작업을 위해 지난해 9월, 직접 우도를 찾아 온종일 갯바다에 앉아 해녀를 그리고 글을 썼다. 『엄마는 해녀입니다』의 주인공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다를 떠난 적이 없는 할머니, 도시에서 미용사로 일하다 해녀가 된 엄마, 두 사람을 지켜보는 소녀다. 고희영 감독은 말했다. “산다는 것은 숨 쉰다는 것인데, 숨을 멈춰야 살 수 있는 해녀들의 은밀한 바다 속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포11〉 인터뷰내용⁷¹⁾

질문: 고희영 감독님으로부터 함께 책을 만들어보자는 이메일을 받고,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으셨다고요.
대답: 에바 알머슨 처음으로 해녀들의 사진을 봤을 때 무언가 아주 강력한 느낌이 들었어요. 야생의 아름다움, 그리고 정직함이 제 마음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들과 함께할 수 있었음을 행운으로 생각해요. 제주 바다와 해녀들을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해녀를 그리는 일은 제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출간된 책의 텍스트, 선물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질문: 김형선 사진작가가 찍은 해녀 사진을 보고, 해녀에게 매료됐다고 들었습니다. 해녀들을 직접 보시고 해녀를 그렸습니다. 실제로 본 해녀들은 어떤 인상이었나요?
대답: 에바 알머슨 해녀들의 강함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강건함도요. 그들의 존재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가치들을 상징합니다. 독립성, 자신감,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 자신의 한계를 매우 잘 알고 있는 겸손함, 그리고 경이로운 공동체로서의 느낌까지요.
질문: 작가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해녀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답: 에바 알머슨 우리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바라보게 되는 점이죠. 그 분들은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다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며, 욕심을 컨트롤하고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가지는 일들이요.

이상 인터뷰 내용 통해서 우리 해녀에게 강건한, 자신한, 독립한 및 자연에 대한 존중한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런 만화가, 영화감독,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해녀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알 수 있다.

◎ 기타

사례1: 물질해야 수당 주니... 할머니 해녀들 '위험한 잠수'

71) 채널에스: <http://ch.yes24.com/Article/View/33633>

제주도 해녀는 지난해 말 기준 3985명이 있다. 이 중 70세 이상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2,386명이다. 반면 40세 미만은 17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수당 지급에 연령 상한선이 없고, 현직 해녀로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이가 많은 해녀는 갑자기 물질에 나서다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강애심 제주도 해녀협회장은 “해녀 수당을 받기 위해 노령의 해녀들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나서는 경우가 있다”며 “보완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집중채취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녀 3명이 물질 중 숨졌다. 모두 70세 이상이었다. 지난달 12일 낮 12시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포구 앞 400m 해상에서 이 마을 해녀 송모(72)씨가 의식을 잃은 채 떠오른 것을 동료 해녀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송씨는 이날 동료 해녀 12명과 해산물 채취 작업을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해녀 총 50명이 물질 중 목숨을 잃었다. 매년 평균 8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그중 84%에 해당하는 42명이 70세 이상이었다.

전문가들은 현업 수당이 아니라 은퇴 수당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한다. 고령 해녀들이 물질에 나서지 않도록 유도하고,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낫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5월 7일 제주도 관계자는 “해녀 안전사고를 수당이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더 이상 물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은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나이와 금액 기준을 확정된 후 올해 하반기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⁷²⁾




사례2: 제주 해녀 정서적 이미지 해외 사례

〈표12〉 해녀사진 및 해외관광객 감성⁷³⁾

사진	관광객 감성
	The island of Jeju in South Korea is famous because the flight route between Jeju and Seoul is the busiest in the world. But it's also famous for something else, namely its Sea Women.

72) <http://news.chosun.com>. 2018.5.8

73) Pinterest 및 중국 Sina 웨이프

	
	<p>The women divers of Jeju Island (known as haenyeo) are unique and rare workers. For centuries, they have harvested seaweed and shellfish at depths of 20 meters, holding their breath for as long as two minutes without any equipment other than their rubber suits, masks and nets. The Korean women divers of Jeju Island have faced the tempestuous tides of history and struggle for economic survival. Many of the haenyeo live a life of purpose and resilience well into their 90s.</p>
	<p>Her pictures spare no detail, capturing the exhaustion, strength, and understated grace of the haenyo. While they may dive to great depths with the apparent ease of mermaids, their job is a difficult one. "I hope to share not only their beauty as women, but also their courage and their tenacity in facing difficulties during their lives," Kim said.</p>
	<p>The Sea Women of South Korea - " For me, the photos of the haenyeo reflect and overlap with the images I have of</p>



my mother and grandmother,” Kim says. “They are shown exactly as they are, tired and breathless. But, at the same time, they embody incredible mental and physical stamina, as the work itself is so dangerous; every day they cross the fine line between life and death. I wanted to capture this extreme duality of the women: their utmost strength combined with human frag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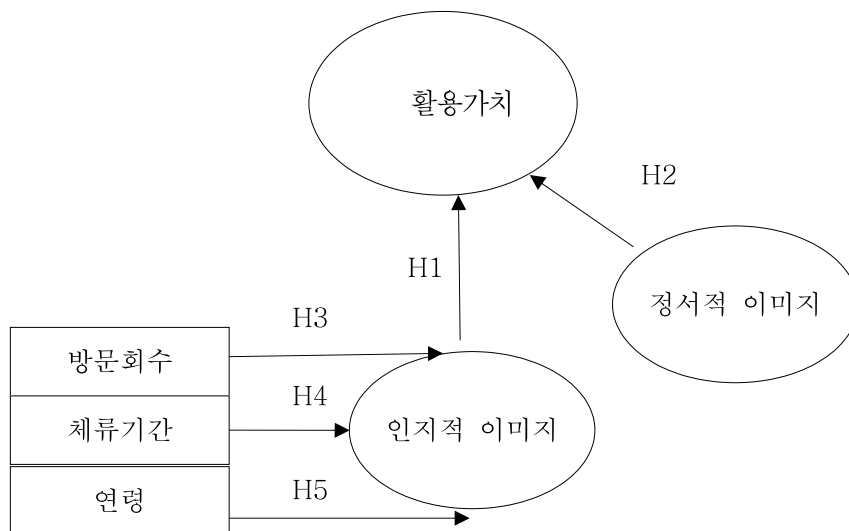
위에 해녀사진 및 해외관람객 감성내용을 보면 구미국가와 중국의 관람객 들은 제주해녀에 대한 인상이 주요 famous(유명한), unique and rare(독특한 및 우수한), incredible mental and physical stamina(강한), so dangerous(위험한), understated grace(우아한), their job is a difficult one(어려운), fragility(약한), 厲害(대단한), 辛苦(고생스러운) 등을 나왔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과 가설 설정

1) 연구모형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해녀이미지를 활용한 관광자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27〉 연구모형

2) 연구가설 설정

제주해녀의 자원이나 매력물 속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가 해녀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서적 이미지와 인지적 이미지 간의 관계는 관광의사결정모델에서 강조되었을 뿐 아니라(Crompton & Ankomah, 1993), 선행적으로 실시된 다수의 국내외 실증연구들을 통해 그 관련성이 검증되었다.(유형숙 2009, 2011, 2014, 2016, 시선화 2016, 고은솔 2018, 안미정 1998, 김은주 2017, 양진숙 2017)

연구가설 H1. 제주해녀 인지적 이미지가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 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H2. 제주해녀 정서적 이미지가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 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H3. 방문회수가 인지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H4. 체류기간이 인지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H5. 연령이 인지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광 이미지 구성요인인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는 관광 목적지의 총체적 이미지로 표현되는 전반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다. 즉, 인지적·정서적 두 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반적 이미지가 형성된다(Baloglu & McCaery, 1999). 특히, 이렇게 총체적으로 인지된 이미지는 부분적으로 인지된 이미지들을 합한 것 보다 더 크다고 주장되고 있다(Fakeye & Crompton, 1991).

김난영(2012)의 연구에서 관광지 인지적 이미지가 정서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 관광지 인지적 이미지가 전반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 관광지 정서적 이미지가 전반적 이미지

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고, 이정규(2014)의 심리적 거리에 따른 관광목적지 이미지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는 정서적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 인지적 이미지는 방문의사에 유의한 영향, 정서적 이미지는 방문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김나형(2017), 오지은(2015)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가 관광객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위의 6개 가설을 설정하였다.

3) 조작적정의 및 측정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는 추상적 구성개념이나 변수를 측정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이나 조작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조작적 정의는 개념을 측정하거나 실험변수를 조작할 때에 연구자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이다.

개념적 정의에 의하여 용어로서의 추상적 개념의 의미는 분명해지고,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그러한 개념을 경험세계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조작적 정의는 개념에 대한 측정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개념적 정의는 측정대상이 갖는 속성에 대한 개념적·추상적 표현인데 반해, 조작적 정의는 그 속성에 대한 경험적·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증 연구를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계량적 측정이 요구되며, 이러한 측정을 통해서만이 현상 속에 내재해 있는 특정 변수의 상태와 변수들 간에 관계를 분석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 측정에 우선하여 개념적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장명희,2006).

개념적 정의는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명확히 한 것으로, 측정을 위해 사전에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을 측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개념을 측정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연구에서 개념적 정의를 실제현상에서 측정 가능하며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정의해 놓은 것을 의미하며, 측정을 위한 조작적 정의와 연구자가 어떻게 실험변수를 조작할 것인가를 규명 해주는 실험적, 조작적 정의로 구분된다(채서일,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1) 관광이미지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 개념은 세계화와 지방화에 따라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장소이미지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곽병호,2011).

이미지가 어떤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태도, 지각이라고 한다면 장소이미지는 대상이 되는 장소에 대한 인상, 신념, 태도 등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소이미지는 특정 장소에 대해 개인 또는 집단이 지니고 있는 설명적인 정보를 토대로 추론된 심리적인 개념작용, 지각 또는 인상의 결과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유경주,2008).

관광이미지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요소들이 계층적으로 상관되어 전개되는 것이고, 인지적 요소는 신념의 종합과 관광지 속성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를 의미하며,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추구하는 여행 동기에 근거한 개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정서적 요소이다(Gartner, 1993 재인용).

관광이미지 측정과 관련하여 연구자들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개념적 구분은 있다. 그것은 환경에 부여하고 있는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요소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환경 심리학적 견해이다(Baloglu & Brinberg, 1997; Baloglu & McCleary, 1999; MacKay & Fesenmaier, 1997; Russell & Pratt, 1981; 박석희·고동우·김병국, 2000 재인용).

(2) 인지적 이미지

인지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목적지의 자원이나 매력물의 속성(attribute)에 의해 측정되었다. Gallarza와 Gil과 Calderson(2002)과 Stepchenkova와 Mills(2010)가 목적지 이미지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인지적 이미지는 목적지의 속성에 의해 측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목적지의 속성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다속성 접근방법을 통해 목적지의 인지적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도출하였다(Wang & Hsu,2011).

그러나 이렇게 수행된 인지적 이미지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인지적 이미지측정을 위

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척도 도출에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는 목적지속성이 연구마다 다양하게 채택되며, 개인인지를 측정하는 특성에 대해서는 동질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Gartner, 1989; Beerli & Martin, 2004). 민웅기와 김남조(2010)는 관광자의 다양한 문화구조로 인해 이미지 인지에 이질성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되도록 많은 관련선행연구를 통해 기 사용된 인지적 이미지 측정척도 항목을 도출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목을 도출할 뿐만 아니라 조사 목적지대상인 제주해녀의 인지적 이미지 측정에 적합한 항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유형숙, 이성호 2011, 유형숙2014,2016, 시선화2016, 고은솔2018, 안미정1998, 김은주2017, 양진숙2017).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총 27개 문항을 인지적 이미지 측정에 사용하였다.

(3) 정서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목적지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나 느낌에 대한 반응으로 측정하였다. 유형숙(2011, 2014, 2016)는 '게으른-부지런한', '무기력한-활기찬', '위험한-안전한', '약한-강한', '일반적인-이색적인', '고풍적인-현대적인', '냉정한-정겨운', '빈곤한-풍족한'과 같은 양극화 척도(bipolar scale)를 이용한 8개 항목을 이용하여 정서적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방혜(2015)는 '즐겁지 않는-즐거운', '생명력이 없는-생명력이 넘치는', '촌스러운-세련된', '낯설은-친숙한', '추한-아름다운', '더러운-깨끗한', '불안한-편안한'과 같은 7개 항목을 사용하였고, 타가미 히로시(2010)는 '재미없는-재미있는', '평범한-매력적인', '토속적인-이국적인', '단조로운-다양한'과 같은 4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김병국(2000)의 연구에서는 '하찮은-중요한', '지루한-흥미로운'과 같은 2개항목만이 사용됐다.

(4) 제주해녀 이미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있는지에 관한문항은 유형숙(2016), 시선화(2016), 고은솔(2018), 안미정(1998), 김은주(2017), 양진숙(2017), 좌혜경, 강정식(2016) 등 제주해녀 관한연구를 검토 후에 선정하였다.

2. 조사의 설계

1) 조사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제주해녀이미지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제주 방문객을 선정하여 장소이미지가 관광객 만족과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관광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본 설문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3차 설문문항을 검토수정하고 2018년 4월 26일에 설문내용의 표절검사 후, 2018년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방식은 제주공항 및 제주해녀박물관에 방문하는 내국인 중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배포와 인터넷 설문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자기기입식을 주로 하고 작성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자가 옆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기입하게 하였다. 총 307부의 설문을 배부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7부를 제외한 300부를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측정항목을 분석 검토하여 이들 측정항목이 조사 대상지인 제주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크게 제주도 관광의 일반사항, 제주해녀의 인지적 이미지, 제주해녀의 정서적 이미지, 제주도 해녀이미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문항,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들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제주도 관광의 일반사항 9개, 제주해녀의 인지적 이미지에 관한 문항 27개, 제주해녀의 정서적 이미지에 관한 문항 22개, 제주도 해녀이미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문항 23개,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들에 관한 문항 5개로 구성하였다.

〈표 13〉 설문지 구성

측정항목	문항수	설문내용	선행연구	척도
제주도 관광형태 적 특성	9	방문회수, 체류기간, 숙박시설, 방문목적, 정보원천, 동반자, 동 반자수량, 교통수단, 관광형태		명목척도
제주해녀 이미지	인지적 이미지 (27)	<p>①해녀는 바다 속의 해산물을 채취하는 직업여성이다.②해녀는 특별한 장비없이 바다 깊이 들어간다.③해녀는 물질작업시 도구를 사용한다.④해녀는 잠수기술이 필요한 전문 직업인이다.⑤해녀들이 숨을 고를 때 내는 소리를 숨비소리라 한다.⑥해녀들의 잠수구역은 정해져 있다.⑦해녀들에게는 잠수병이 있다.⑧옛날에는 남자도 물질을 했다.⑨제주도 해녀들은 육지로도 물질을 나왔다.⑩해녀들은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한다.⑪제주도에는 해녀가 운영하는 식당이 많다.⑫해녀음식은 맛이 있다.⑬제주도에는 해녀가 운영하는 민박이 많다.⑭제주도에는 해녀 관련 상품이 많다.⑮해녀공연은 재미가 있다.⑯해녀물질체험은 재미있다.</p> <p>⑰제주도의 해녀축제는 유명하다 ⑱해녀는 제주의 대표적 여성조직이다.⑲해녀들은 어촌계원이다.⑳제주에서 해녀상이 있다.㉑제주도에는 해녀박물관이 있다. ㉒해녀이미지의 벽화를 본 적이 있다.㉓해녀 관련 영화를 본 적이 있다.㉔제주도 해녀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㉕해녀는 제주도에 제일 많다.㉖해녀들의 고품화는 심각하</p>	유형숙, 이성호 (2011), 유형숙 (2014,2016), 시선화(2016), 고은솔(2018), 안미정(1998), 김은주(2017), 양진숙(2017)	5점척도

	다.㉞해녀의 숫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정서적 이미지 (22)	<p>부정적 단어: 즐겁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무기력한, 재미없는, 지루한, 위험한, 약한, 평범한, 촌스러운, 단조로운, 낯설은, 폐쇄적, 일반적인, 고풍적인, 토속적인, 추한, 더러운, 불안한, 하찮은, 냉정한, 게으른, 빈곤한</p> <p>긍정적 단어: 즐거운, 생명력이 넘치는, 활기찬, 재미있는, 흥미로운, 안전한, 강한, 매력적인, 세련된, 다양한, 친숙한, 개방적, 이색적인, 현대적인, 이국적인, 아름다운, 깨끗한, 편안한, 중요한, 정겨운, 부지런한, 풍족한</p>	유형숙, 이성호 (2011), 유형숙 (2014,2016), 방혜(2015), 김병국(2000), 타가마 히로시 (2010)	5점척도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치 (23)	<p>①해녀의 문화유산자원(불턱, 원담 등)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②과거 해녀들이 먹던 밥상을 관광상품화 할 가치가 있다.③해녀가 채취한 수산물은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④제주해녀의 생활문화는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⑤해녀의 집은 공동브랜드화 할 가치가 있다.⑥해녀가 운영하는 민박은 자원화 할 가치가 있다.⑦해녀문화 공동체는 관광자원화 할 가치가 있다.⑧해녀문화콘텐츠는 활용가치가 높다.⑨해녀노래와 춤은 공연상품으로 가치가 있다.⑩잠수굿 문화는 관광자원화 할 가치가 있다.⑪해녀의 이미지를 활용한 기념품을 개발할 가치가 있다.⑫전통해녀복을 응용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할 가치가 있다.⑬해녀 이미지는 브랜드화 할 가치가 있다.</p> <p>⑭해녀 박물관은 관광명소화할</p>	유형숙(2016), 시선화(2016), 고은솔(2018), 안미정(1998), 김은주(2017), 양진숙(2017), 좌혜경, 강정식 (2016)	5점척도

		<p>필요가 있다. ⑮해녀체험은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p> <p>⑯해녀를 어촌관광의 리더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⑰해녀문화는 훌륭한 축제자원이다.⑱마을기업으로 해녀의집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⑲해녀 벽화는 자원화할 가치가 있다.⑳해녀이미지는 스토리텔링화할 필요가 있다.㉑해녀의 작업 공간은 관광자원화할 가치가 있다.㉒해녀의 신화·전설은 관광자원화할 가치가 있다.</p> <p>㉓해녀이미지는 영화/만화/소설 등 문학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p>		
인구통계학 특성	5	성별, 연령, 직업, 수입, 거주지		명목척도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22.0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인 인구통계학적 및 관광 행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지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 제주해녀이미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측정항목에 대하여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목을 정리하였고, 크롬바하 알파(Cronbarch's α)값을 이용하여 신뢰도 검증을 하였으며,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자료분석 및 검증결과

1. 표본의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전체 300명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표14>와 같이, 성별은 남성이 109명(36.3%), 여성이 191명(63.7%), 연령은 20세 미만 13명(4.3%), 20~29세 182명(60.7%), 30~39세 68명(23.7%), 40~49세 25명(8.3%), 50세 이상 9명(3.0%), 직업은 학생 105명(35.0%), 농어민 4명(1.3%), 사무/관리직 97명(32.3%), 서비스/판매직 20명(6.7%), 생산직 7명(2.3%), 자영업/기업체운영 30명(10.0%), 주부7명(2.3%), 공무원 16명(5.3%), 기타 15명(5.0%),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87명(29.0%), 100~200만원 88명(29.3%), 200~300만원 74명(24.7%), 300~400만원 21명(7.0%), 400만 원 이상 30명(10.0%)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는 제주도65명(21.7%), 서울 58명(19.3%), 경기도(인천포함) 38명(12.7%), 전라도(광주포함) 18명(6.0%), 충청도(대전포함) 17명(5.7%), 경상도(부산, 대구, 울산 포함) 20명(6.7%), 강원도 6명(2.0%), 기타 78명(26.0%)로 조사되었다.

〈표14〉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구성비율(%)
성별	남성	109 36.3
	여성	191 63.7
연령별	20세 미만	13 4.3
	20세~29세	182 60.7
	30세~39세	71 23.7
	40~49세	25 8.3
	50세 이상	9 3.0
직업별	학생	105 35.0
	농어민	4 1.3
	사무/관리직	97 32.3
	서비스/판매직	20 6.7
	생산직	7 2.3
	자영업/기업체운영	30 10.0

	주부	7	2.3
	공무원	16	5.3
	기타	15	5.0
소득수준	100만 미만	87	29.0
	100만~200만	88	29.3
	200만~300만	74	24.7
	300만~400만	21	7.0
	400만 이상	30	10.0
거주지별	제주도	65	21.7
	서울	58	19.3
	경기도(인천포함)	38	12.7
	전라도(광주포함)	18	6.0
	충청도(대전포함)	17	5.7
	경상도(부산, 대구, 울산 포함)	20	6.7
	강원도	6	2.0
기타	78	26.0	

2) 관광행태적 특성

표본의 관광 행태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5>와 같다.

응답자의 방문형태를 살펴보면, 제주도의 방문횟수가 1회 81명(27.0%), 2회 56명(18.7%), 3회 48명(16.0%), 4회 12명(4.0%), 4회 이상 103명(34.3%)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이 당일 9명(3.0%), 1박2일 68명(22.7%), 2박3일 77명(25.7%), 3박4일 42명(14.0%), 4박 이상 104명(34.7%)로 나타났다.

제주도에서 체류하는 동안 이용하는 숙박시설이 호텔 110명(36.7%), 모텔 29명(9.7%), 친구/친척집 31명(10.3%), 콘도 28명(9.3%), 펜션 38명(12.7%), 민박 28명(9.3%), 야영 4명(1.3%), 기타 32명(10.7% 게스트하우스 등 이용)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방문하신 중요한 목적은 비즈니스(학술/회의/산업고찰) 34명(11.3%), 여가/관광 196명(65.3%), 쇼핑 13명(4.3%), 친구/친척 방문 21명(7.0%), 스포츠(해양스포츠/축구/골프/기타경기) 5명(1.7%), 기타 31명(10.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제주도에 관한 정보를 주로 방식이 여행사 35명(11.7%), 친구/친척 63명(21.0%), 대중매체(TV/신문/잡지/라디오 등) 44명(14.7%), 인터넷 104명(34.7%), 홍보 광고 21명(7.0%), 기타 33명(11.0%)로 나타나고 정보의 주요 얻을 수단은 인터넷이다.

동반자는 혼자 47명(15.7%), 가족이 74명(24.7%), 친구 혹은 연인이 121(40.7%)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동료 22명(7.3%), 단체 7명(2.3%), 학우들 20명(6.7%), 기타 9명(3.0%)로 나타났다.

동반자 수량은 혼자 47명(15.7%), 2명이 99명(33.0%), 3명이 73명(24.3%) 4명이 31명(10.3%), 5명이 50명(16.7%)로 결과 나왔다.

교통수단은 자가용 47명(15.7%), 렌트카가 92명(30.7%), 관광버스가 43명(14.3%), 대중교통 101명(34.6%)로 가장 많았고, 기타 17명(5.7%)으로 나타났다.

개별여행이 258명(86.0%)로 가장 많았고, 패키지여행이 42명(14.0%)로 나타났다.

〈표15〉표본의 관광행태적 특성

구분		빈도	구성비율 (%)
방문횟수	1회	81	27.0
	2회	56	18.7
	3회	48	16.0
	4회	12	4.0
	5회 이상	103	34.3
체류기간	당일	9	3.0
	1박2일	68	22.7
	2박3일	77	25.7
	3박4일	42	14.0
	4박 이상	104	34.7
숙박장소	호텔	110	36.7
	모텔	29	9.7
	친구/친척집	31	10.3
	콘도	28	9.3
	펜션	38	12.7
	민박	28	9.3
	야영	4	1.3
	기타	32	10.7
방문목적	비즈니스(학술/회의/산업고찰)	34	11.3
	여가/관광	196	65.3
	쇼핑	13	4.3
	친구/친척 방문	21	7.0
	스포츠(해양스포츠/골프/축구/기타경기)	5	1.7
	기타	31	10.3
방문정보	여행사	35	11.7
	친구/친척	63	21.0
	대중매체(TV/신문/잡지/라디오 등)	44	14.7

	인터넷	104	34.7
	홍보 광고	21	7.0
	기타	33	11.0
동반자 유형	혼자	47	15.7
	가족	74	24.7
	친구/연인	121	40.3
	직장동료	22	7.3
	단체(동호회, 친목회 등)	7	2.3
	학우들(수학여행, 졸업여행)	20	6.7
	기타	9	3.0
동반자 수	혼자	47	15.7
	2명	99	33.0
	3명	73	24.3
	4명	31	10.3
	5명 이상	50	16.7
교통수단	자가용	47	15.7
	렌트카	92	30.7
	관광버스	43	14.3
	대중교통	101	33.7
	기타	17	5.7
여행종류	개별여행	258	86.0
	패키지여행	42	14.0

2. 측정항목의 신뢰성 및 타당성분석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항목 중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인 크롬바하 알파(Cronbach's)를 이용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베리맥스(Varimax)회전을 실시하였다.

신뢰성은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의존가능성 등으로 표현되는 개념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곽병호, 2011).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장명희, 2006).

측정도구의 정확성, 정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크롬바하(Cronbach)의 알파(α)와 같은 신뢰도 척도를 계산해 낸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뢰

도 계수인 Cronbach's 알파(α)계수는 문항이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즉 내적 일관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알파(α)계수는 상관관계로 해석되므로, 그 범위는 0에서1까지의 값을 가지며, 보통 0.60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보며 전체 항목을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정충영, 최이규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크롬바하 알파(Cronbarch's α)값을 사용하였는데 크롬바하 알파(Cronbarch's α)값은 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이 서로 얼마나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끼리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0.7이상(또는 0.6)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본다(곽병호,2011).

제주해녀 인지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 관광자원 활용가치 항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는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신뢰성 검정에는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하였다.

먼저, 인지적 이미지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6>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총 27개 문항 중 22개 문항은 요인적재량이 .5이하이고 타당성을 저해하여 제거하였으며, 나머지 총22개 문항은 최종 4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4개 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석결과는 <표 1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크론바 알파값이 .5이상으로 모두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광지 정서적 이미지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7>에 제시한 것과 같이, 분석에 사용된 총 22개 중 16개 문항이 3개 요인으로 묶여 도출되었다. 관광자원 활용가치에 관한항목도 동일로 분석해서 총 23개 중 9개 문항이 3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도출된 관광지 정서적 이미지 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석결과는 <표 17>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크론바 알파값이 .8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인지적 이미지

제주해녀에 대한 인지적 이미지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6>와 같다. 제주해녀에 대한 인지적 이미지는 27개 문항이 22개 요인적재치가 0.5

이상으로 나타났고, 신뢰도계수는 0.8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어,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파악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인지적 이미지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요인	변수	요인분석결과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누적)	신뢰도
매력물	해녀공연이 재미있다	0.771	0.659	3.45	12.776 (12.776)	.771
	해녀축제가 유명하다	0.764	0.613			
	해녀영화를 본다.	0.635	0.476			
	해녀체험이 재미있다	0.620	0.531			
	해녀상품이 많다	0.612	0.524			
환경	제주도에 해녀 제일 많다	0.651	0.513	2.815	10.427 (23.204)	.706
	해녀는 어촌계원이다	0.574	0.517			
	해녀 고령화가 심각하다	0.535	0.616			
	해녀 수 감소 중	0.515	0.639			
	해산물 채취하는 직업여성	0.506	0.392			
경험의 질	해녀상이 있다	0.667	0.636	2.175	8.057 (31.261)	.649
	해녀벽화를 본다.	0.643	0.611			
	해녀박물관이 있다.	0.564	0.576			
가치	해녀음식 맛이다.	0.645	0.499	6.014	21.535 (52.796)	.567
	해녀식당 많다	0.592	0.559			
	해녀 운영한 민박 많다	0.503	0.503			
	해녀 작업시 도구 사용	0.734	0.601			
	잠수구역 정해져 있다	0.604	0.559			
	채취한 해산물 판매	0.515	0.418			
	잠수병이 있다	0.746	0.639			
	옛날 남자도 물질을 했다	0.672	0.499			
	육지로도 물질을 나왔다	0.512	0.499			
KMO=.834 $\chi^2= 2304.249$, df=351, 유의확률0.00						

위에 분석을 통해서 주성분 분석의 배리맥스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고유값 1 이상의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김병국·박석희(2001)는 Baloglu & McCleary (1999)의 연구를 토대로 방문 전 관광이미지 형성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인지적 이미지를 환경, 매력물, 경험의 질, 가치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연구의 일치성으로 추출된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의미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요인명은 매력물/ 환경/ 경험의 질/ 가치로 명명하였다.

〈표1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요인 설명력과 적합성을 보여주는 KMO는 .83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2304.249(df=351)로 모두 1%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분산 설명력도 52.796%로 나타나 측정변수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서적 이미지

〈표17〉 정서적 이미지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요인	변수	요인분석결과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누적)	신뢰도
우세함	게으른/부지런한	0.799	0.724	5.285	24.021 (24.021)	.889
	냉정한/정겨운	0.755	0.639			
	추한/아름다운	0.746	0.646			
	하찮은/중요한	0.725	0.650			
	더러운/깨끗한	0.719	0.596			
	약한/강한	0.626	0.495			
	일반적인/이색적인	0.600	0.519			
즐거움	무기력한/활기찬	0.763	0.711	3.735	16.978 (40.999)	.848
	재미없는/재미있는	0.754	0.675			
	생명력이 없는/넘치는	0.734	0.597			
	지루한/흥미로운	0.698	0.575			
	즐겁지 않는/즐거운	0.683	0.546			
자극	고풍적인/현대적인	0.763	0.590	3.705	16.842 (57.841)	.741
	위험한/안전한	0.756	0.580			
	불안한/편안한	0.718	0.598			
	토속적인/이국적인	0.607	0.440			
KMO=.935 $\chi^2= 3366.242$, df=231, 유의확률0.00						

위에 분석을 통해서 주성분 분석의 배리맥스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고유값 1 이상의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김병국·박석희(2001)는 Baloglu & McCleary (1999)의 연구를 토대로 방문전 관광이미지 형성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정서적 이미지를 자극, 즐거움, 우세함, 환기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연구의 일치성으로 추출된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의미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요인명은 우세함/ 즐거움/ 자극으로 명명하였다.

〈표1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요인 설명력과 적합성을 보여주는 KMO는 .93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3366.242(df=231)로 모두 1%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분산 설명력도 57.841%로 나타나 측정변수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관광자원 활용가치

〈표18〉 관광자원 활용가치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요인	변수	요인분석 결과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누적)	신뢰도
자원화 가치	해녀 작업공간 관광자원가치	0.747	0.652	4.564	19.842 (19.842)	.787
	브랜드화 가치	0.700	0.611			
	신화, 전설 관광자원화 가치	0.611	0.545			
	문학작품으로 자원가치	0.608	0.504			
문화적 활용가 치	문화유산자원 관광자원가치	0.757	0.629	3.927	17.074 (36.916)	.689
	생활문화 관광자원가치	0.678	0.528			
	문화콘텐츠 활용가치	0.611	0.524			
필요성	마을기업으로 해녀의집 운영	0.835	0.734	3.919	17.041 (53.957)	.543
	어촌관광리더로 양성할 필요성	0.695	0.611			
KMO=.947 $\chi^2= 3413.895$, df=253, 유의확률0.00						

위에 분석을 통해서 주성분 분석의 배리맥스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고유값 1 이상의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의미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요인명은 자원화 가치/ 문화적 활용가치/ 필요성으로 명명하였다.

〈표1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요인 설명력과 적합성을 보여주는 KMO는 .94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3413.895(df=253)로 모두 1%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분산 설명력도 53.957%로 나타나 측정변수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제주해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

항목	평균값	표준편차	유의수준
①해녀의 문화유산자원(불턱, 원담 등)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	4.20	0.730	.000***
②과거 해녀들이 먹던 밥상을 관광상품화 할 가치가 있다.	4.00	0.828	.000***
③해녀가 채취한 수산물은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	4.05	0.868	.000***
④제주해녀의 생활문화는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	4.15	0.755	.000***

⑤해녀의 집은 공동 브랜드화할 가치가 있다.	3.94	0.873	.000***
⑥해녀가 운영하는 민박은 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3.96	0.867	.000***
⑦해녀문화 공동체는 관광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4.06	0.842	.000***
⑧해녀문화콘텐츠는 활용가치가 높다.	4.04	0.847	.000***
⑨해녀노래와 춤은 공연상품으로 가치가 있다.	3.95	0.833	.000***
⑩잠수굿 문화는 관광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3.96	0.859	.000***
⑪해녀의 이미지를 활용한 기념품을 개발할 가치가 있다.	4.09	0.801	.000***
⑫전통해녀복을 응용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할 가치가 있다.	4.00	0.862	.000***
⑬해녀 이미지는 브랜드화할 가치가 있다.	4.09	0.853	.000***
⑭해녀 박물관은 관광명소화할 필요가 있다.	4.08	0.838	.000***
⑮해녀체험은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4.16	0.810	.000***
⑯해녀를 어촌관광의 리더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3.98	0.883	.000***
⑰해녀문화는 훌륭한 축제자원이다.	4.06	0.832	.000***
⑱마을기업으로 해녀의집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3.96	0.855	.000***
⑲해녀 벽화는 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4.00	0.812	.000***
⑳해녀이미지는 스토리텔링화할 필요가 있다.	4.04	0.851	.000***
㉑해녀의 작업 공간은 관광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4.02	0.886	.000***
㉒해녀의 신화·전설은 관광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4.03	0.829	.000***
㉓해녀이미지는 영화/만화/소설 등 문학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4.10	0.846	.000***

주: *** p<0.001

위에 제주해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에 관한항목을 T-검증결과를 보면 전부문항이 p<0.001 유의하고 그중에 17개 문항의 표준값을 4이상에 나타났다.

3.가설의 검증결과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변수인 제주해녀 인지적 이미지 관련 6개 변수와 정서적 이미지 관련 3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 활용가치를 3개 요인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0>에 제시한 것과 같다. <표 21>에 인지적 이미지 6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방문횟수, 체류기간, 연령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든 분석결과에 대한 효과를 살펴 보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표 20〉 인지적 이미지/정서적 이미지가 활용가치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수	활용가치									
	자원화 가치			문화적 가치			필요성			
	표준 계수 (β)	t	유의 수준	표준 계수 (β)	t	유의 수준	표준 계수 (β)	t	유의 수준	
인지적	매력물	0.074	0.994	0.322	0.150	2.019	0.045	0.275	3.562	0.000
	환경	0.179	2.562	0.011	0.180	2.572	0.011	0.012	0.172	0.864
	경험의 질	0.222	3.400	0.001	0.148	2.262	0.025	0.094	1.393	0.165
	가치	0.059	-0.055	0.956	0.138	0.655	0.513	0.072	0.698	0.486
정서적	우세함	0.319	4.693	0.000	0.068	1.000	0.319	0.141	2.004	0.047
	즐거움	0.01	0.147	0.883	-0.007	-0.107	0.915	0.247	3.510	0.001
	자극	0.003	0.042	0.967	0.121	1.677	0.095	-0.071	-0.951	0.343
R2	.756			.757			.812			
F-value	7.613			7.552			5.720			
p	0.000			0.000			0.000			

〈표 20〉에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적 이미지가 활용가치에 정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20〉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활용가치의 자원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수(인지적 이미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환경, 경험의 질, 가치 요인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가치의 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수(인지적 이미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가치 요인을 빼고 다른 요인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가치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수(인지적 이미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매력물 요인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지적 이미지가 활용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정서적 이미지가 활용가치에 정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0〉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활용가치의 자원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수(정서적 이미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세함 요인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가치의 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수(정서적 이미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자극 요인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가치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수(정서적 이미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세함, 자극 요인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서적 이미지가 활용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표 21〉 방문횟수, 체류기간, 연령별이 인지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수	종속변수								
	방문횟수			체류기간			연령		
	표준 계수(β)	t	유의 수준	표준화 계수(β)	t	유의 수준	표준화계 수(β)	t	유의 수준
매력물	-0.128	-2.458	0.015	-0.124	-2.271	0.024	-0.013	-0.245	0.806
환경	0.222	4.277	0.000	0.117	2.139	0.033	0.244	4.442	0.000
경험의 질	0.183	3.532	0.000	0.063	1.145	0.253	0.206	3.747	0.000
가치	-0.004	-0.066	0.000	-0.034	-0.618	0.000	-0.059	-1.023	0.000
R2	.194			.103			.098		
F-value	13.013			6.727			6.402		
p	.000			.000			.000		

방문횟수, 체류기간, 연령별이 인지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1〉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방문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수(인지적 이미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전부 요인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수(인지적 이미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매력물, 환경, 가치 요인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수(인지적 이미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환경, 경험의 질, 가치 요인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문횟수, 체류기간, 연령별이 인지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표 22〉 가설검증결과 요약

구분	가설	결과
H1	인지적 이미지가 활용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친숙적, 자원적, 접근적 이미지가 활용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인지적 이미지가 문화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매력적, 유산적 이미지가 필요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	정서적 이미지가 활용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활동적 이미지가 활용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안락성 이미지가 활용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활동적, 흥미성 이미지가 활용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	방문회수가 인지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	체류기간이 인지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체류기간이 매력물, 환경, 가치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5	연령이 인지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연령이 환경, 경험의 질, 가치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 집단 간 차이분석

설문방식은 현지방문 및 인터넷 배부의 2가지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현지방문은 주요 제주 공항 및 제주해녀박물관에 방문하는 성인들에게 조사표를 배부하고 인터넷에 제주관광경험자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에 제주공항 및 제주해녀박물관에 각 75부를 회수하고 인터넷에서 157부를 회수하였다. 인터넷에서 회수된 응답 내용을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7부를 제외한 150부를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표 23〉 설문조사 방법

	조사방법	회수 부수
현지방문	제주공항	75부
	제주해녀박물관	75부
인터넷 조사	제주관광경험자 대상으로	157부(유효표본150부)

다음에 두 집단 간의 차이분석을 실시하겠다.

1) 인지적 이미지에 대한 평균차이분석

〈표 24〉 인지적 이미지에 대한 평균차이분석

항목	평균값		평균 차이	t값	p값
	현지 방문 150부	인터넷 150부			
①해녀는 바다 속의 해산물을 채취하는 직업여성이다.	4.18	3.75	0.43	3.124	0.002***
②해녀는 특별한 장비없이 바다 깊이 들어간다.	3.11	3.48	-0.37	-2.511	0.013**
③해녀는 물질작업시 도구를 사용한다.	4.04	3.64	0.40	3.12	0.002***
④해녀는 잠수기술이 필요한 전문 직업인이다.	4.12	3.94	0.18	-0.427	0.670
⑤해녀들이 숨을 고를 때 내는 소리를 숨비소리라 한다.	3.79	3.68	0.11	1.592	0.113
⑥해녀들의 잠수구역은 정해져 있다.	3.83	3.86	-0.03	1.02	0.309
⑦해녀들에게는 잠수병이 있다.	2.96	3.42	-0.46	-3.224	0.002***
⑧옛날에는 남자도 물질을 했다.	2.76	3.71	-0.95	-4.054	0.000***
⑨제주도 해녀들은 육지로도 물질을 나왔다.	3.27	3.70	-0.43	-3.194	0.002***
⑩해녀들은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한다.	4.09	3.91	0.18	2.510	0.013**
⑪제주도에는 해녀가 운영하는 식당이 많다.	4.00	3.87	0.13	1.252	0.212
⑫해녀음식은 맛이 있다.	3.75	3.87	-0.12	-1.495	0.137
⑬제주도에는 해녀가 운영하는 민박이 많다.	3.61	3.78	-0.17	-0.127	0.899
⑭제주도에는 해녀 관련 상품이 많다.	3.72	3.91	-0.19	0.491	0.624
⑮해녀공원은 재미가 있다.	3.59	3.77	-0.18	0.482	0.630
⑯해녀물질체험은 재미있다.	3.68	3.71	-0.03	0.475	0.635
⑰제주도의 해녀축제는 유명하다	3.69	3.92	-0.23	0.162	0.872
⑱해녀는 제주의 대표적 여성조직이다.	4.07	3.85	0.22	2.171	0.032**
⑲해녀들은 어촌계원이다.	3.79	3.62	0.17	0.145	0.885
⑳제주에서 해녀상이 있다.	4.23	3.80	0.43	3.813	0.000***
㉑제주도에는 해녀박물관이 있다.	4.20	3.87	0.33	2.522	0.013**
㉒해녀이미지의 변화를 본 적이 있다.	3.84	3.73	0.11	1.738	0.084*
㉓해녀 관련 영화를 본 적이 있다.	3.06	3.44	-0.38	-0.298	0.766
㉔제주도 해녀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4.02	3.74	0.28	1.742	0.084*
㉕해녀는 제주도에 제일 많다.	4.05	3.71	0.34	1.096	0.275
㉖해녀들의 고령화는 심각하다.	4.33	3.56	0.77	4.454	0.000***
㉗해녀의 숫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4.43	3.79	0.64	5.330	0.000***

주 1) * : p<0.1, **: p<0.05, ***: p<0.01

주 2) 평균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부여한 산술평균임

현지방문과 인터넷간의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인지적 이미지 항목으로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이미지항목이 2개, 0.05 수준에서 유의한 이미지 항목이 4개, 0.01 수준에서 유의한 이미지 항목이 8개로 나타났다.

〈표 24〉에 결과를 보면 $p < 0.01$ 수준에서 해녀는 바다 속의 해산물을 채취하는 직업여성이다, 해녀는 물질작업시 도구를 사용한다, 해녀들에게는 잠수병이 있다, 옛날에는 남자도 물질을 했다, 제주도 해녀들은 육지로도 물질을 나왔다, 제주에서 해녀상이 있다, 해녀들의 고령화는 심각하다, 해녀의 숫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8개 항목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옛날에는 남자도 물질을 했다(-0.95), 해녀들의 고령화는 심각하다(0.77), 해녀의 숫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0.64), 해녀들에게는 잠수병이 있다(-0.46), 해녀는 바다 속의 해산물을 채취하는 직업여성이다(0.43), 제주도 해녀들은 육지로도 물질을 나왔다(-0.43), 제주에서 해녀상이 있다(0.43)순으로 나타났다.

2) 정서적 이미지에 대한 평균차이분석

〈표 25〉 정서적 이미지에 대한 평균차이분석

항목	평균값		평균 차이	t값	p값
	현지 방문 150부	인터넷 150부			
즐겁지 않는/즐거운	3.72	3.74	-0.02	0.000	1.000
생명력이 없는/생명력이 넘치는	3.95	3.74	0.21	0.655	0.514
무기력한/활기찬	3.95	3.81	0.14	0.861	0.391
재미없는/재미있는	3.79	3.71	0.08	1.406	0.162
지루한/흥미로운	3.86	3.71	0.15	-0.198	0.844
위험한/안전한	2.92	3.35	-0.43	-0.411	0.682
약한/강한	3.88	3.59	0.29	1.765	0.080*
평범한/매력적인	3.86	3.65	0.21	2.157	0.033**
촌스러운/세련된	3.65	3.64	0.01	1.962	0.052*
단조로운/다양한	3.50	3.55	-0.05	1.257	0.211
낯설은/친숙한	3.76	3.65	0.11	2.344	0.020**

폐쇄적/개방적	3.50	3.55	-0.05	2.202	0.029**
일반적인/이색적인	3.95	3.83	0.12	1.634	0.104
고풍적인/현대적인	2.89	3.56	-0.67	-2.674	0.008***
토속적인/이국적인	3.34	3.62	-0.28	1.585	0.115
추한/아름다운	3.77	3.55	0.22	1.591	0.114
더러운/깨끗한	3.61	3.56	0.05	0.107	0.915
불안한/편안한	3.23	3.52	-0.29	-0.602	0.548
하찮은/중요한	3.98	3.79	0.19	1.573	0.118
냉정한/정겨운	3.91	3.74	0.17	1.693	0.093*
게으른/부지런한	4.19	3.59	0.60	3.153	0.002***
빈곤한/풍족한	3.43	3.46	-0.03	0.000	1.000

주 1) * : $p < 0.1$, ** : $p < 0.05$, *** : $p < 0.01$

주 2) 평균은 「매우 적절」 5점, 「적절」 4점, 「보통」 3점, 「부적절」 2점, 「매우 부적절」 1점을 부여한 산술평균임

현지방문과 인터넷간의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서적 이미지 항목으로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이미지항목이 3개, 0.05 수준에서 유의한 이미지 항목이 3개, 0.01 수준에서 유의한 이미지 항목이 2개로 나타났다.

〈표 25〉에 결과를 보면 $p < 0.01$ 수준에서 고풍적인/현대적인, 게으른/부지런한 두개 항목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제주해녀 이미지의 활용가치에 대한 평균차이분석

〈표 26〉 제주해녀 이미지의 활용가치에 대한 평균차이분석

항목	평균값		평균 차이	t값	p값
	현지 방문 150부	인터넷 150부			
①해녀의 문화유산자원(불턱, 원담 등)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	4.27	4.05	0.22	1.000	0.319
②과거 해녀들이 먹던 밥상을 관광상품화 할 가치가 있다.	4.05	3.91	0.14	2.388	0.018**
③해녀가 채취한 수산물은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	4.10	3.95	0.15	0.573	0.567
④제주해녀의 생활문화는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	4.19	4.07	0.12	1.369	0.173
⑤해녀의 집은 공동 브랜드화할 가치가 있다.	3.96	3.90	0.06	1.513	0.132

⑥해녀가 운영하는 민박은 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4.00	3.89	0.11	1.599	0.112
⑦해녀문화 공동체는 관광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4.13	3.94	0.19	1.830	0.069*
⑧해녀문화콘텐츠는 활용가치가 높다.	4.11	3.90	0.21	0.068	0.946
⑨해녀노래와 춤은 공연상품으로 가치가 있다.	3.99	3.88	0.11	1.398	0.164
⑩잠수굿 문화는 관광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4.00	3.89	0.11	2.142	0.034**
⑪해녀의 이미지를 활용한 기념품을 개발할 가치가 있다.	4.13	4.01	0.12	0.870	0.386
⑫전통해녀복을 응용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할 가치가 있다.	4.03	3.95	0.08	0.386	0.700
⑬해녀 이미지는 브랜드화할 가치가 있다.	4.15	3.96	0.19	2.016	0.046**
⑭해녀 박물관은 관광명소화할 필요가 있다.	4.18	3.88	0.30	1.934	0.055*
⑮해녀체험은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4.22	4.05	0.17	0.592	0.555
⑯해녀를 어촌관광의 리더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4.09	3.77	0.32	2.454	0.015**
⑰해녀문화는 훌륭한 축제자원이다.	4.11	3.97	0.14	0.743	0.459
⑱마을기업으로 해녀의집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3.98	3.93	0.05	0.613	0.541
⑲해녀 벽화는 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4.09	3.83	0.26	3.293	0.001***
⑳해녀이미지는 스토리텔링화할 필요가 있다.	4.09	3.93	0.16	1.675	0.096*
㉑해녀의 작업 공간은 관광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4.09	3.88	0.21	1.329	0.186
㉒해녀의 신화·전설은 관광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4.12	3.87	0.25	2.804	0.006***
㉓해녀이미지는 영화/만화/소설 등 문학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4.20	3.90	0.30	2.911	0.004***

주 1) * : p<0.1, **: p<0.05, ***: p<0.01

주 2) 평균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부여한 산술평균임

현지방문과 인터넷간의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활용가치 항목으로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이미지항목이 3개, 0.05 수준에서 유의한 이미지 항목이 4개, 0.01 수준에서 유의한 이미지 항목이 3개로 나타났다.

<표 26>에 결과를 보면 p<0.01 수준에서 해녀 벽화는 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해녀의 신화·전설은 관광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해녀이미지는 영화/만화/소설 등 문학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3개 항목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제주해녀 이미지의 활용가치에 관한 23개 항목은 현지방문과 인터넷 조사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큰지 않아서 현지방문에 조사 결과를 보면 (해녀의 집은 공동 브랜드화할 가치가 있다, 마을기업으로 해녀의집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두 항목을 빼고 다른 21개 항목 다 4점 이상을 나타냈다. 반면에 인터넷 조사결과를 보면 4점 이상항목을 4개(해녀의 문화유산자원(불턱, 원담 등)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 제주해녀의 생활문화는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 해녀의 이미지를 활용한 기념품을 개발할 가치가 있다, 해녀체험은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만 있다.

V.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제주지역의 해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해녀의 이미지로 일찍이 ‘낡고 전근대적’이라는 이미지에서 1960년대 이후, 지역 엘리트리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조되어 ‘근면·검소·자립’으로, 나아가 1980년대 이후, 관광업 등의 발달로는 ‘부지런하고 강인한(강한 여성)’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해녀에 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부지런한/ 강한/ 신중한/ 활기찬 등의 이미지가 나타나서, 실제적이라는 해녀의 이미지가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녀관광의 도입기에 해당하는 현시점에서는 아직 “해녀=관광자원”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해녀이미지가 정확하게 추출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⁷⁴⁾

본 연구에서는 제주해녀이미지를 활용한 관광자원방안을 추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미지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제주해녀 이미지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이미지 구성요인인 인지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 활용가치 간 어떠한 영향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제주해녀 인지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 관광 자원 활용가치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 분석 및 실증분석으로 분석결과를 통해서 제주해녀 인지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 활용가치 평가에 관한 결과 유형숙(2011, 2014, 2016)의 선행연구 결과를 비해 해녀이미

74) 유형숙, 이성호, 2011. "부산광역시 "해녀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대학생과 일반인간의 이미지 차이분석 -" **동북아관광연구** 제7권 제1호 (통권12호):37.

지 인지도가 더 높아졌다. 그 중에 3개 부분의 설문조사 결과 요인분석을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해녀이미지 27개 항목을 위에 분석을 통해서 주성분 분석의 배리맥스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고유값 1 이상의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의미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요인명은 매력물/ 환경/ 경험의 질/ 가치로 명명하였다. 4개요인 중에 적재량 0.5이상 항목을 22개를 선택하고 적재량 0.6이상 항목을 13개를 선택했다. 대부분 항목을 선택해서 대중의 해녀이미지 인지수준을 2011년 연구에 비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제주해녀 정서적 이미지 22개 항목을 위에 분석을 통해서 주성분 분석의 배리맥스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고유값 1 이상의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의미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요인명은 우세함/ 즐거움/ 자극으로 명명하였다. 3개요인 중에 적재량 0.6이상 항목을 16개를 선택했다. 해녀에 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즐거운/ 생명력이 넘치는/ 활기찬/ 재미있는/흥미로운/강한/이색적인/아름다운/깨끗한/중요한/정겨운/부지런한/편안한/현대적인/이국적인 등의 이미지가 나타나서, 선행연구들을 비해 실제적이라는 해녀의 이미지가 더 많이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셋째, 제주해녀이미지 관광자원 활용가치에 관한 23개 문항을 위의 분석을 통해서 주성분 분석의 배리맥스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고유값 1 이상의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의미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요인명은 자원화 가치/ 문화적 활용가치/ 필요성으로 명명하였다. 3개요인 중에 적재량 0.6이상 항목을 9개를 선택했다. 그 중에 해녀의 문화유산자원(불턱, 원담 등)은 관광자원으로 서 가치가 있다/제주해녀의 생활문화는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 해녀문화 콘텐츠는 활용가치가 높다/해녀 이미지는 브랜드화할 가치가 있다/해녀의 작업 공간은 관광자원화 할 가치가 있다/해녀의 신화, 전설은 관광자원화할 가치가 있다는 등 관광자원가치 평가에 나타났다.

그리고 가설 실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방문횟수, 체류기간, 연령별이 인지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인지적 이미지가 활용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정서적 이미지가 활용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2016년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이래 많은 연구자들은 해녀문화 지속가능한 발전하기 위해서 해녀자원 활용방안을 많이 제시하였다. 그 중에 관광학 박사 강은정(2016) ‘해녀의 집’활성화 및 해녀음식 자원화 방안, 이선화(2016) 제주해녀 스토리텔링 통한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김은주(2017) 헤리티지를 활용한 제주해녀 문화상품 개발방안,

양진숙(2017)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 정 민 의, 이 용 규(2017)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양관광콘텐츠 연구 등 포함 있다. 이런 연구결과 및 제주해녀이미지를 활용한 관광자원방안을 통해 “해녀=관광자원”이라는 개념이 확립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은 주요 설문조사의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와 제주해녀 관련통계자료이다.

시간적인 한계로 10일 동안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응답자의 차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설문내용이 비교적 많아 응답 소유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됨에 따라 많은 응답자들이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았다.

특히 인터넷에서 제주관광경험자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선정의 적합성에 큰 결함을 있으며, 유효 표본의 3분의 2를 이에 의존함으로써 자료수집의 일반적 편의성에 입각한 임의 추출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공간적인 한계로 제주해녀박물관 관람객 중심으로 조사하여 이들은 이미 제주해녀이미지를 잘 이해함에 따라 제주관광객과 제주도민 간의 해녀에 대해 인지적 차이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성별, 방문횟수, 소득수준, 방문형태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광형태적 특성을 T 검사로 분석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점을 보완하고, 제주도 기타 각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제주해녀이미지 관광자원화 활용에 더 많은 방안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자료의 한계점은 주요 해녀박물관 관람객 구체적인 방문수량, 유형구분 및 제주해녀축제의 관광객 참여정도 등을 포함한다. 제주해녀 박물관의 연간 관람객 수량 및 방문객 연령층, 지역 등 관련 자료, 선행연구가 없다. 또한 제주해녀축제의 참여자 구분, 유형 등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축제는 야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REFERENCES

- 강재정·송재호·양성국, 2003. "관광동기·이미지·재방문의도간 구조적 관련성". **관광학연구**, 26(4): 221-238.
- 고승환, 2004. "제주해녀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변화" **제주발전연구원**.
- 고은솔, 2018.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전승방안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광희, 2013.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14
- 김낙현, 2008. "관광목적지 이미지가 관광자의 만족도,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 대양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난영, 2012. "관광지 인지적, 정서적, 전반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제24권 제1호(통권 30): 23~47.
- 김만석, 2010. "컨버전스시대 전통문화원형의 문화콘텐츠화전략" 북코리아 출판사.
- 김병국, 2000. "관광지 이미지의 형성에 관한 연구-인지적, 정서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병국·박석희, 2001. "관광지 이미지의 형성에 관한 연구: 인지적·정서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5(1): 271-290.
- 김시경, 2002. "관광이미지와 관광지선택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은영, 1991. "이미지메이킹", **김영사**.
- 김은주, 2017. "헤리티지를 활용한지역 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연구 -제주해녀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문경희, 1994. "정치광고의 Image Making 전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문화재청, 2006. 06.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청, 2016. "해녀'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보고서".
- 박석희·고동우·김병국, 2000. "관광지의 정서적 이미지 척도 개발 연구". **한국공원휴양학회지**, 2(2): 149-163.
- 박석희·고동우, 2002. "관광지의 정서적 이미지 척도 개발: 순정서적 이미지와 준정서적 이미지

- ”. **관광학연구**, 25(4).
- 방혜, 2016. “관광목적지 선택속상과 이미지가 만족도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중국 황산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안미정, 2008. “제주잠수의 바다밭”, 제주대학교 출판부.
- 안미진, 1997.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양진숙, 2017, “제주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월간관광제주사, “참으로 끈질긴 해녀들의 힘; 제주해녀의 역사와 현황”.
- 유네스코(UNESCO), 1998.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정(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 유네스코(UNESCO), 2003.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유형숙, 이성호, 2011. “부산광역시 “해녀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대학생과 일반인간의 이미지 차이분석 -” **동북아관광연구** 제7권 제1호 (통권12호):23-42.
- 유형숙, 2009. “해녀복지 및 관광자원화”, 국토해양부.
- 유형숙, 2014, “해녀관광”에 관한 인지도, 이미지 및 기대가치의 비교분석” **동북아관광연구** 제 10권 제2호 (통권25호) ; 243-259.
- 유형숙, 2016, “일본 시마반도 해녀사진을 통한 해녀이미지 분석” **동북아관광연구** 제12권 제4호 (통권35호) ; 63-82.
- 尹星熙, 2011, “제주 전통 해녀복을 응용한문화 관광 상품 개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윤유식·오정학·김경태, 2010. “백제역사재현단지”의 관광지이미지와 기대가치의 구조관계 분석을 통한 브랜드 전략 연구 -상징조형물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25권 1호.
- 이상봉, 2002. “관광지 이미지가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선재, 윤두아 지음, 2008. “이미지메이킹 - 셀프마케팅”, (주)교문사.
- 이선화, 2016. “제주해녀 생애사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성훈, 2005. “제주도 해녀 노젓는 소리의 본토전승양상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 **민속원**.
- 이성훈, 2005.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 이인재·조광익, 2003. “관광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기대와 직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관광

- 이미지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7(1).
- 이진희, 2007. "제주도 해양관광의 현황과 발전전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세미나.
- 이진희, 2008,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제주해양관광의 속성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2 (4).
- 이진희, 2009. "제주도 농어촌 관광마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24.
- 이진희, 2011. "제주도 어촌관광 동기분석에 따른 관광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7(3).
- 이진희, 2014, "제주도 어촌체험마을의 관광 명소화 전략", 경남대학교 Green & Blue 융합형 관광전문인력 양성사업단.
- 이진희·홍원식, 2010. "표선 어촌마을 관광활성화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36.
- 이충기, 2002. "월드컵 메가이벤트가 한국 관광지의 인지도와 이미지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 평가: 2002 월드컵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26권 제1호.
- 이태희, 1997. "한국 관광지 이미지 측정척도의개발". **관광학연구**, 20(2): 80-95.
- 이후석·오민재, 2006.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이미지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한산성과 수원화성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제20권 제1호.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3. "제주 해양유적과 문화 보전·활용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2011. "해녀문화의 세계화와 해녀 소득증대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2015.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제주해녀어업을 중심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 "제주해녀사료집".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10. "이여도사나: 제주해녀노래집".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12. "제주해녀옷 이야기".
- 제주특별자치도, 2013.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2015.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별 특성 및 실태조사-제주시편".
- 제주특별자치도, 2015. "제주해녀 나잠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신청서".
- 제주특별자치도, 2016. "국가중요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연구".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13. "해녀문화유산 조사".

- 제주학연구센터, 2017. "제주해녀음식".
- 조규익 외, 2005. "제주도 해녀 노젓는 소리의 본토 전승양상에 관한 조사·연구" : 서부 경남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 조혜정, 1982.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한국인과 한국문화** , 한상복 편, 심설당.
- 좌혜경 외, 2004. "제주잠녀(해녀)의 해양문명사적 가치와(잠녀학) 정립 가능성 모색", **한국학
술진흥재단**.
- 좌혜경 외, 2006.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미", 서울 : 민속원.
- 좌혜경, 2015. "제주 해녀", 대원사.
- 좌혜경·강정식, 2014. "제주해녀문화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 **제주학연구 12** ;
- 천후 (陳虎) , 2015. "세계문화유산관광지 이미지와 후생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타가미 히로시, 2010. "세계자연유산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차이분석-제주도 세계유산을 방문
한 한일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18, 19
- 해녀박물관 발간자료집, 2015. "사진으로 전하는 하도해녀 이야기".

UNESCO: <http://www.unesco.org>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

제민일보: <http://www.jemin.com>

제주민속촌: <https://jejufolk.com>

제주해녀박물관홈페이지:<http://www.jeju.go.kr/haenyeo>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p.go.kr>

한국 문화재보호재단: <http://www.fpcp.or.kr>

한국 문화재청: <http://www.ocp.go.kr>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

- Alcaniz, E. B. & Garcia, I. S. & Blas, S. S. 2009. The functional-psychological continuum in the cognitive image of a destination: A confirmatory analysis, *Tourism Management*, 30. 715-723.
- Aram, S. & Pearce, P. 2005. Multi-faceted image assessment, *Journal of Travel&Tourism Marketing*, 18(4). 21-35.
- Baloglu, S. & Brinberg, D. 1997. Affective images of tourism destinat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5(4): 11-15.
- Baloglu, S. & McCleary, K. W. 1999. A Model of destination image form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4). 868-897.
- Baloglu, S. & McCleary, K. W. 1999. A model of destination image form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4): 868-897.
- Baron, R. M. & Kenny, D. A. 1996. The moderato-mesiator variable de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erli, A. & Martin, J. D. 2004. Factors Influencing destination imag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3). 657-681
- Beerli, A. & Martin, J. D. 2004. Tourists' characteristics and the perceived image of tourist destinations: a quantitative analysis-a case study of Lanzarote, Spain. *Tourism Management*, 25. 623-636.
- Boulding, K. E. 1956. *The Imag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hen, C & Tsai, D. 2007. How destination image and evaluative factors affect behavioral intentions?, *Tourism Management*, 28. 1115-1122.
- Chen, C. M. & Chen, S. H. & Lee, H. T. 2011. Assessing destination image through combing tourist cognitive perceptions with destination resource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Adminstration*, 11. 59-75.
- Choi, J. G. & Tkachenko, T. & Sil, S. 2011. On the destination image of Korea by Russian tourists, *Tourism Management*, 32. 193-194.
- Chon, K. S. 1991. *Tourism Destination Image Modification Process: Marketing*

- implications. *Tourism Management*, 12: 68-72.
- Dicher, E. 1985. What is in an image?.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 39-52.
- Dobhi, D. & Zinkhan, G. M. 1990. In Search of Brand Image: A Foundation Analysis.
- Echtner, C. M. & J. R. B. Ritchie. 1993. The Measurement of destination image an empirical assess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Spring): 3-13.
- Erickson, G. M., Jonson, J. K. & Chao, P. 1983. Image Variable in Multivariable Product
- Gartner, W. C. 1989. Tourism Image: Attribute measurement of state tourism products using multidimensional scaling techniqu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Fall): 16-20.
- Gartner, W. C. 1993. Image Formation Process. *Communication and Channel systems in Tourism marketing*: 191-215.
- Gartner, W. C. 1993. Image Formation Process. In *Communication of Channel Systems in*
- Hunt, J. D. 1975. Image as a Factor in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Image in Tourist Destination Selec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39: 37-44.
- Kotler, P. 1973. Atmospherics as a Marketing Tool. *Journal of Retailing*, 29(4), 48.
- Kotler, P. 1988. *Marketing Management 6* edited b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Lazarus, R. S. 1982. Thought on the relation between emotion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37(9), 1019-1024.
- Lippmann, W. 1962. *Public Opin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MacKay, K. J. & Fesenmaier, D. R. 1997. Pictorial element of destination in image form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537-565.
- Mill, R. C. & Morrison, A. M. 1992. *The tourism system: an introductory text*. Englewood, N.J.: Prentice-Hall.

- Russel, J. A. & Pratt, G. 1980. A description of affective quality attributed to environ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311-322.
- Russel, J. A., Ward, L. M. & Pratt, G. 1981. Affective quality attributed to environments: A factor analytic study. *Environment and Behavior*, 13: 259-288.
- Russel, J. A., Ward, L. M. & Pratt, G. 1981. Affective quality attributed to environments: A factor analytic study. *Environment and Behavior*, 13: 259-288.
- Stern, E. & Krakover, S. 1993. The formation of a composite urban image. *Geographical Analysis*, 25(2): 130-146.
- Tapachai, N. & Waryzak, R. 2000. An Examination of the Role of Beneficial Image in Tourist Destination Selec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39: 37-44.
- Walmsley, D. J. & J. M. Jenkins. 1992. Tourism Cognitive Mapping of Unfamiliar
- Walmsley, D. J. & Young M. 1998. Evaluative Images and Tourism: The use of personal constructs to describe the structure of destination imag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 65-69.

설문지

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이미지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 에 관한 연구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석사과정에 제학 중이며 현재 “무형문화인 제주해녀이미지를 활용한 관광자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해녀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주해녀이미지를 활용한 관광자원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설문지입니다.

여러분의 기재하신 내용은 제주 해녀이미지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 됩니다.

본 설문지의 설문내용은 정해진 정답이 없으므로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이 평소의 생각을 빠짐없이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지도교수: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개발학과 교수 이진희

연구자: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 진쟁(01094929588)

I. 다음은 이번 **제주도 관광의 일반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귀하께서 제주도를 몇 번 방문하셨습니다?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2. 귀하께서 제주도에 얼마나 체류하셨습니다?

- ① 당일 ② 1박2일 ③ 2박3일 ④ 3박4일 ⑤ 4박 이상

3. 귀하께서 제주도에 체류하는 동안 이용하시는 숙박시설이 무엇입니까?

- ① 호텔 ② 모텔 ③ 친구/친척 집 ④ 콘도 ⑤ 펜션 ⑥ 민박 ⑦ 야영 ⑧ 기타

4. 귀하께서 제주도에 방문하신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비즈니스(학술/회의/산업고찰) ② 여가/관광 ③ 쇼핑 ④ 친구/친척 방문 ⑤ 스포츠(해양스포츠/골프/축구/기타경기) ⑥ 기타

5. 귀하께서 제주도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얻었습니까?

- ① 여행사 ② 친구/친척 ③ 대중매체(TV/신문/잡지/라디오 등) ④ 인터넷 ⑤ 홍보 광고 ⑥ 기타

6. 이번 관광은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 ① 혼자 ② 가족 ③ 친구/연인 ④ 직장 동료 ⑤ 단체(동호회, 친목회 등) ⑥ 학우들(수학여행, 졸업여행) ⑦ 기타

7. 이번 관광에 귀하의 함께 온 사람은 몇 명입니까? (본인포함)

- ① 혼자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8. 귀하의 이번 여행의 교통수단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 ① 자가용 ② 렌트카 ③ 관광버스 ④ 대중교통 ⑤ 기타

9. 귀하의 이번 여행의 형태는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 ① 개별여행 ② 패키지여행

Ⅱ. 다음에 귀하께서는 느끼시는 **제주 해녀의 인지적 이미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측정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해녀는 바다 속의 해산물을 채취하는 직업여성이다.	①	②	③	④	⑤
②해녀는 특별한 장비없이 바다 깊이 들어간다.	①	②	③	④	⑤
③해녀는 물질작업시 도구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해녀는 잠수기술이 필요한 전문 직업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⑤해녀들이 숨을 고를 때 내는 소리를 숨비소리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해녀들의 잠수구역은 정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⑦해녀들에게는 잠수병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옛날에는 남자도 물질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⑨제주도 해녀들은 육지로도 물질을 나왔다.	①	②	③	④	⑤
⑩해녀들은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⑪제주도에는 해녀가 운영하는 식당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⑫해녀음식은 맛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⑬제주도에는 해녀가 운영하는 민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⑭제주도에는 해녀 관련 상품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⑮해녀공연은 재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⑯해녀물질체험은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⑰제주도의 해녀축제는 유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⑱해녀는 제주의 대표적 여성조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⑲해녀들은 어촌계원이다.	①	②	③	④	⑤
⑳제주에서 해녀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㉑제주도에는 해녀박물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㉒해녀이미지의 벽화를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㉓해녀 관련 영화를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㉔제주도 해녀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㉕해녀는 제주도에 제일 많다.	①	②	③	④	⑤
㉖해녀들의 고령화는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⑤
㉗해녀의 숫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에 귀하께서는 느끼시는 **제주 해녀의 정서적 이미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점수에 (√) 표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	예상측정항목에 대한 적절성 정도					긍정적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즐겁지 않는	①	②	③	④	⑤	즐거운
생명력이 없는	①	②	③	④	⑤	생명력이 넘치는
무기력한	①	②	③	④	⑤	활기찬
재미없는	①	②	③	④	⑤	재미있는
지루한	①	②	③	④	⑤	흥미로운
위험한	①	②	③	④	⑤	안전한
약한	①	②	③	④	⑤	강한
평범한	①	②	③	④	⑤	매력적인
촌스러운	①	②	③	④	⑤	세련된
단조로운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낯설은	①	②	③	④	⑤	친숙한
폐쇄적	①	②	③	④	⑤	개방적
일반적인	①	②	③	④	⑤	이색적인
고풍적인	①	②	③	④	⑤	현대적인
토속적인	①	②	③	④	⑤	이국적인
추한	①	②	③	④	⑤	아름다운
더러운	①	②	③	④	⑤	깨끗한
불안한	①	②	③	④	⑤	편안한
하찮은	①	②	③	④	⑤	중요한
냉정한	①	②	③	④	⑤	정겨운
게으른	①	②	③	④	⑤	부지런한
빈곤한	①	②	③	④	⑤	풍족한

IV. 제주도 해녀이미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측정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해녀의 문화유산자원(불턱, 원담 등)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과거 해녀들이 먹던 밥상을 관광상품화할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해녀가 채취한 수산물은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④제주해녀의 생활문화는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⑤해녀의 집은 공동 브랜드화할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해녀가 운영하는 민박은 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⑦해녀문화 공동체는 관광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해녀문화콘텐츠는 활용가치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⑨해녀노래와 춤은 공연상품으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⑩잠수굿 문화는 관광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⑪해녀의 이미지를 활용한 기념품을 개발할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⑫전통해녀복을 응용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할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⑬해녀 이미지는 브랜드화할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⑭해녀 박물관은 관광명소화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⑮해녀체험은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⑯해녀를 어촌관광의 리더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⑰해녀문화는 훌륭한 축제자원이다.	①	②	③	④	⑤
⑱마을기업으로 해녀의집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⑲해녀 벽화는 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⑳해녀이미지는 스토리텔링화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㉑해녀의 작업 공간은 관광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㉒해녀의 신화·전설은 관광자원화할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㉓해녀이미지는 영화/만화/소설 등 문학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남성 ②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20세미만 ②20세~29세 ③30세~39세 ④40세~49세 ⑤50세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학생 ② 농어민 ③사무/관리직 ④서비스/판매직 ⑤생산직 ⑥자영업/기업체운영 ⑦주부 ⑧공무원 ⑨기타

4. 귀하의 월평균 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100만원 미만 ②100만~200만원 ③200만~300만원 ④300만~400만원 ⑤400만원 이상

5.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에 속합니까?

- ①제주도 ②서울 ③경기도(인천 포함) ④전라도(광주 포함) ⑤충청도(대전포함) ⑥경상도(부산, 대구, 울산 포함) ⑦강원도 ⑧기타

◆ 끝까지 성실히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ABSTRACT

Exploring the Value of Tourism Resource Utilization in Jeju Haenyeo Image

CHEN ZHENG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f you examine the study of a strong woman diver in Jeju Island, you will see the image of a woman diver was once snell and old-fashioned since 1960, changing to be diligent, plain and independent image till 1980, and the positive image of a regional elite has been emphasized . A positive image of a woman diver appeared to be diligent, strong, cautious, and energetic, and it was judged that her image was realistic. However, it is hard to judge that the image of the diver was established correctly, the concept of 'Haenyeo= Tourist Resources 'is not established at this time of the introduction of the Haenyeo tour.(Yoo Hyung Sook 2011)yet

Using the image of a Jeju woman diver and the image study that c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he study made a research on the pursuit of a tourism resource plan.In detail, it examined how Jeju woman divers were perceived. It also analyzed the existence of an impact relationship among the elements of the image - the cognitive image, the emotional image and the value of the utilization. I will tell you the specific Jeju female diver's cognitive image, emotional image, and value of using tourist resources as follows.

Through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Jeju female divers' cognitive image, emotional image, and utilization value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prior research result in 2011, 2014, and 2016. Among them, three of the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as follows.

First, using analysis method of varimax rotation through analysis of 27 items of Jeju haenyeo image. we extracted four factors over the number of eigenvalue 1. Factor names were named attraction, environment, the quality of experience, value incentive considering the semantic relevance of the variables that constitute extracted factors. Among the four factors, 22 items were selected by 0.5 load for the elevator, and 13 items were selected by 0.6 load for the elevator. By choosing most items, the level of the image of the maidens in the public has been risen highly than 2011 a lot.

Second, using analysis method of varimax rotation through analysis of 22 items of Jeju woman's emotional image, we extracted eight factors over the number of unique value 1. Considering the semantic correlation of the variables that be formed by the factor extraction. We named thoses factors preponderance, enjoyment, stimulation. Among the three factors, 16 items were selected by 0.6 load for the elevator. The positive image of women diver clearly stands forth that diver is delightful, energetic, interesting, beautiful, clean and friendly. We can make a conclusion that the actual image of women diver is more than the image that we named in advance research.

Third, using analysis method of varimax rotation through analysis of 23 items about tourist attraction utilization valule, we extracted three factors over the number of unique value 1. Considering the semantic correlation of the variables that be formed by the factor extraction. We named thoses factors self-resourcing value of cultural utilization and necessity. 9 items were selected by 0.6 load for the elevator. Out of the three factors, and 9 items with a capacity of 0.6 or more were selected. Among them, the assessments of tourist

attraction are as follows.

And if you examine prove hypothesis consequence, there are three hypotheses as follows. The first one is called the number of visits, the length of one's stay, and age affect on the definition of the cognitive image. The second one is called cognitive image influences the definition of utilization value. The third one is called emotional image have an effect on the value of utilization. The three hypotheses were adapted partly.

To realiz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diver culture, There are more resource utilization plan appearing since UNESCO intangible culture heritage of humanity was registered. For example, Among them, Kang Eun-jeong(2016), a tourism professor, has activated the 'Female Divendities ' House ' and become a volunteer for food, Lee Sun-hwa (2016) A study on revitalization strategies of cultural contents through storytelling focused on life history of Jeju Haenyeo, Jin-Sook Yang(2017) A Study on the Cultural Brand Plan of the Dance of Jeju Haenyeo, Jung Min-Eui and Lee Woong-Kyu (2017) A Study on the Contents of Marine Tourism according to the Entry of UNESCO Humanit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Jeju Haenyeo Culture. Through thoses study and the jeju woman diver image untilizable tourist attractian plans, the conception named 'Haenyeo=tourise attraction' can be established.

Keywords: Haenyeo image, tourise attraction, cognitive, emotional